



‘미세먼지 대책 공동 추진’ 中 지방정부에 제안

양승조 지사 ‘제2회 한·중 지사·성장 회의’서 발표



유, 동북아 기후환경 연대를 위해 도가 개최하고 있는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대기오염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미세먼지에는 국경이 없다”라며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저감 대책 공동 추진에 양국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중 지사·성장 회의는 한국과 중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관광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발표·토론을 통해 지방정부 간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지난 2015년 6월 한·중 FTA 서명 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시도 지사협의회와 중국 인민대외우호 협회가 2년 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016년 인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을 비롯 서울·대구·세종·전남·경북·제주 등 우리나라 7개 시·도와 베이징시·랴오닝성·장시성·네이멍구자치구·허베이성·헤이룽성·지린성·장쑤성·구이저우성·산시성 등 중국 11개 시·성이 참가했다.

김성구기자



대전시-한국(주)에프씨아이-이탈리아 솔리드피워사 ‘맞손’ 둔곡 외투지역에 대규모 합작투자

해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유망한 대전시 현지시간 26일 낮 12시 이탈리아 트렌티노 자치정부가 26일 이탈리아 현지에서 둔곡외국인투자지역의 대규모 합작투자를 유치했다.

국인투자지역 내 4만 9,500㎡의 부동산 면적에 합작 투자 방식으로 총 5,12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트렌티노 자치정부 아킬레 스피넬리(Achille Spinelli) 경제개발 장관과 EU 의회 레모 세르나지오토(Remo Senegiotto)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국-이탈리아 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조성 중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한국당·바른미래당 파행 멈추고 예산심사 참여해라”

더불어민주당 “‘권한’만을 앞세워 정치적 거래 도구로 삼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슬관직 파행’을 멈추고 국회의 책무인 예산심사에 성실히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이날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예결특위 활동 시한이 불과 사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원 세입변동’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심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예결위 정상화 이후, 5일 만에 벌써 두 번째 파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입 변동은 세법 개정 및

세입 조정안 조정, 세출 조정, 국제발행 등 보안책을 예결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면 해결되는 사항”이라며 “소위에서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과 일주일만에 있었던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 마무리’라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마저 파괴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행’을 슬관처럼 되풀이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가 당의 행태는 ‘파행 중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른 12월 2일 예산통과와 국회법에 따른 11월

30일 예산안 심사완료는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약속”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가당이 국회의 ‘책무’인 예산안 심사를 두고 ‘권한’만을 앞세워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 심사’마저 정쟁을 위해 내팽개치는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가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인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김성구기자

대전대 발전협력사무국, 도시공감연구소로부터 발전기금 전달

“젊은 인재 양성 위해 쓰일 것”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발전협력사무국에서는 27일 대학 30주년 기념관 9층 비서실에서 도시공감연구소소장 김창수로부터 2천만 원에 대한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다산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이종서 총장을 비롯해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장과 송동섭 ㈜모던E&R 대표이사이자 다산학당 회장 및 행정학과 이창기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전기금을 약정한 도시공감연구소는 지난달 4일 대전대학교와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성무)가 함께 다산학당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에는 총 56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1기 목민반을 개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개혁정신에 대해 학습 중에 있다. 내년 3월 27기 과정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도시공감연구소 관계자는 “다산학당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



▲ 왼쪽부터 이창기 교수, 이종서 총장, 김창수 소장, 송동섭 다산학당 회장.

학사상과 개혁정신을 이어가려는 청년의 학문의 배움터”라며 “이번 발전기금 약정은 향후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사랑의 열매 20주년 기념사업

희망2019 나눔캠페인 2018.11.20~2019.1.31

나눔으로 행복한 대전 사랑의 열매가 만들겠습니다.

1. 상담의 책 (예산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전지회)

- KCS센터 : 625-362089-00104
- 전화 : 427-01-004074
- 국민 : 424-01-0031-926
- 우체국 : 312710-01-000123

2. 방송사

- KBS대전 : KCS센터 625-362085-07605
- 대전MBC : 전화 317-0001-3779-01
- TJB대전 : 전화 427-01-023271

3. 시·구별, 교육청 순회모금

일시	목적	장소
2018.12.03(월) 18시	서구	서구청
2018.12.08(수) 18시	중구	중구청
2018.12.07(화) 18시	동구	동구청
2018.12.10(월) 18시	대덕구	대덕구청
2018.12.19(수) 18시	대전새마을	교육청
2018.12.21(목) 12시	대전새	대전사청
2018.12.18(수) 18시	유성구	유성구청

4. ARS 기부 : 0995-700-0080 한 푼 2,000원 기부

5. 직포용기 : 가정용 배고 및 79개 등 주민센터에 비치

※ 우리 지역에서 모아진 성금은 대전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액 지원됩니다.

기부상담 ☎ 042-347-5171 | ARS기부 ☎ 060-700-0080

도내 문화관광 분야 국비 확보 주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국비확보 위한 집행부 노력 절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문화관광 분야 국비 확보를 주문했다.

문복위에 따르면 도 일반회계 예산은 5조 74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9%가 증액됐다.

하지만 문체국 예산은 전년대비 4.5%인 102억원이 증가에 그쳤으며,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연 위원장은 "안면도 3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해에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방문했고, 올해도 유럽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성과 없이 설명하면 개최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라고 질타했다.

최훈 의원(공주2)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46억원이 감액됐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의 재정 형편상 국비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노력을 촉구했다.

황영란 의원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96%로 높은 수준이지만, 카드 사용률은 이에 못 미치는 76.79%에 불과하다"며 카드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환기자



서구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강의 및 투표체험'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7일 남대전능형 정림지점에서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및 이·감사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 및 투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강의는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위탁선거법,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타 조합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의에 앞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체험을 실시하여 선거장비 시스템의 관심 유도 및 투표참여 홍보도 병행했다.

바른미래당 "문대통령은 전면적 개혁 방안 마련하라"

정책 실패 대해 인정하고 전면적 개혁 방안 마련 강조

바른미래당 김경화 대변인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은 '완전한 경제', 대통령의 단일한 경제 인식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OECD 사무총장을 만나 'GDP나 경제성장률보다 국민의 삶의 질의 지표가 더 중요하다'며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정말 말로는 못하는 게 없는 정부이다. GDP와 성장률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경제를 살릴 자신이 없으니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판단과 어긋나는 문 대통령의 자평이 유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부, 말만하면 자화자찬인 정부, 시간이 갈수록 참으로 못 믿을 정부"라며

"언제까지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 지역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실의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인가.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 오만(傲慢)인가. 미숙(未熟)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합탈상승 유발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다. 경제를 포기한 삶의 질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의회, 조례안 3건 산업건설위원회 통과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제208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난 26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아산시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택 의원 발의)이다.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7조와 관련 별표4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대지의 공지 기준 중 양장, 양봉, 양어시설, 곤충사육시설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다.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뜻과 신용보증기금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하는 오류 인용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다.

이상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조정 거부사유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개선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발생한 삭제된 인용조문 정비 등이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동구의회 "식장산에 대형차량 주차장 만들자"

제239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2건의 건의안 채택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나영)가 "대전시에서 철도폐선부지(삼정동 9-2번지 일원) 매입을 통해 식장산에 대형차량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구의회는 27일 제2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식장산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과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조사

사 통과 촉구"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황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지구)은 식장산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 건의안에서 "대전의 대표 명산인 식장산의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차와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식장산 입구의 철도폐선

부지를 대전시에서 매입해 관광버스 등 대규모 방문객을 위한 대형차량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허태정 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황 의원은 "해당 부지(2만여㎡)는 등산로까지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거리가서 최적의 장소이며, 기존 도로보다 고도가 낮아 대형차량으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투데이 유성구 유성동 26-20 세종빌딩 7층

'알리'와 함께하는 '쑥쑥' 선거법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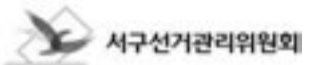
여러분에게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리'와 함께하는 '쑥쑥' 선거법 Q&A를 연재 합니다.

▲ 정당에 당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입당하고자 하는 정당의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당에 따라 공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각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아직 학생인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나요?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정당 가입이 제한됩니다.

▲ 정당에 가입하려면 꼭 당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위해 당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당비 납부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에 따라 당내 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 정당의 현황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현재 32개의 정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메뉴 분야별 정보-정당·정치자금-정당정보-정당등록현황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반환엔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제공=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42) 471-1390

어기구 의원 '국가 R&D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우리나라 국가 R&D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 의실에서 '국가 R&D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관 제5간담회 의실에서 '국가 R&D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관 제5간담회 의실에서 '국가 R&D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유덕 기술사업화 담당, 에너지 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박훈근 실장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어기구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채워져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 R&D의 혁신방안이 충분히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조폭노조 의한 무법천지로 전락"

김태흠 의원 성명서 발표

김태흠 의원은 27일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조폭노조에 의한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대낮에 아산 소재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임원을 감금한 채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비명이 들리는데도 민주노총이 막고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폭행 현장을 수수방관했고,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집단구타 현행범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눈앞에서 '감금', '집단 폭행'이라는 무법천지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국민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며 "문재인 정부들이 민주노총은 권력서열 최상위한 채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비명이 들리는데도 민주노총이 막고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폭행 현장을 수수방관했고,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집단구타 현행범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남무하는 무법천지 세상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법치주의 확립 의지가 있다면 집단 폭행을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엄벌에 처하고, 국민보호 의무를 직부유기한 경찰 수뇌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국민을 위한 공권력'이 아니고 민주노총을 위한 공권력'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강철수기자

공주시의회 의원, 주요사업장 8개소 현장방문

문제점 지적과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주문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는 지난 23일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사업장 8개소를 현장 방문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관내 폐교 6개소와 유관순열사상 조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구공주시보건소를 리모델링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예정인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창선 부의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곳곳을 둘러본 후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손잡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위험하다. 또, 화장실이 좁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사용 시 회전을 할 수 없고 문턱도 있어 화장실 진입 자체를 할 수 없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 전 보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은 공주시에서 매입한 폐교인 유구입석분교, 우성 청신분교, 정안 월산초, 의당 의랑초도덕분교, 반포 상신분교, 백제문화제 소풍 장소로 활용 중인 계룡 양흥초를 방문, 활용 현황을 둘러보았다.

유구 입석분교는 위탁계약에 의해 한국공연예술센터마을로 활용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노력 중이긴 하지만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우성 청신분교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시에 위탁협약을 체결, 한방웰니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정안 월산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소평마을 영농조합법인에 2022년 10월 10일까지 운영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또, 도덕분교는 강백년사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2019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반포 상신분교는 2019년까지 계룡산 상신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한 상태이다.

공주=정성범기자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 도입

행복도시,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계약자 편의 증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과 한신공영(주)대표이사 태기전은 다음 달에 분양하는 세종시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터넷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류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계약자 편

의도 증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행복청은 부동산 매매·임대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분양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 참여와 홍보효과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행복주택,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복청과 한신공영(주)은 1-5 생활권 H5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시에 전자계약을 시범 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토부와·한국감정원(시스템 운영관 리기관)과 협업하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다.

실제 전자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고, 계약 당일엔 긴 대기시간

으로 인한 불편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전자계약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대상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등으로 미리 제출하면,

계약당일에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 → 전자계약안내문 송부 → 계약 서류 제출 → 전자계약

다만,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체결 가능하나, 건설사마다 종류가 다양한 유상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은 현재와 같이 서면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안부·과기정통부 등 2019년에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기관의 당첨자는 계약당일에 세종시에 있는 견본주택 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전자계약이 성공한다면 향후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전자계약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도시철도공동구 긴급 점검

대전도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서울에서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27일 도시철도공동구를 긴급 점검했다.

도시철도에 설치된 공동구는 관암·외삼 차랑기지, 갑천역-본사에 설치된 3개소로 관제실 전력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등이 지나가는 관로를 말한다.

공사에 따르면 긴급 점검 결과 공동구내에 설치된 소화설비, 판

센트, 배수장치, 케이블 상태 등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시에도 공사는 안전관리팀과 전기, 통신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계절별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담당부서에는 주기적으로 공동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규중 안전관리팀장은 "도시철도 공동구는 고열이나 화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내화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공동구마다 특성에 맞게 화재 대비 자동소화장치, 열선형 감지기, 스프링클러, 소화

전 등의 소화설비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사 김민기 사장은 "공동구에 화재가 발생하여도 전동차는 역사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 받고 있기 때문에 열차 운행은 바로 중단되지 않지만 공동구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시설물 점검과 부서별 관리 설비 점검 시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서울 KT 화재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물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 역세권 주상복합 용적률 완화 앞장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6대 의회에서도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면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을 배려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14회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14회 공포 후보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이 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대 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용적률 완화로 인해, 향후 약 1조 3천억 원의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와 함께 생산과급 효과 1조 5천억 원, 부가가치 과 급효과 9천억 원, 취업 및 고용 효과는 약 3만 1천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남진근 의원은 "원도심 지역은 빈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생기고 도심공동화 현상도 점차 해소되어 궁극적으로는 원도심과

대전충남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97개 중소기업 선정

시험·인증비·공장심사비·컨설팅비 등 최대 1억원 지원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범수)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대전·충남 지역 97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총 24억 7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인증획득 완료시 성공조건부 50%~70%에 해당하는 소요비용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제품분야는 화장품, 의류, 기기, 가공식품, 화학물질 등으로 347개의 해외규격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 규격에 대해서도 내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직 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선정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받는다.

상시 접수가 아닌 공고시마다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포털(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윤범수 청장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해외인증 획득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충남도교육청, 15개 시·군과 교육경비 확보 적극 협력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교육경비관계자 워크숍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충청남도, 15개 시·군 교육경비 관계자 협의회를 갖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1월 27일부터 2일간 보령 학생입학수련원에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충남도청과 15개 시·군청, 14개 교육지원청 교육협력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경비 확보 현황, 교육협력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발표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2019년도부터 충남이 전면 실시하는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무상교복 등 충남교육 3무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3무정책이 실현되면 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230만원, 중학교 1학년 교복비는 1인당 30만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정황 교육행정국

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 자치 단체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 15개 시·군은 2019년부터 도내 학생들에게 고교무상교육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에 689억 원, 고교 무상급식에 740억 원, 중학교 1학년 무상교복 지원에 589억 원 등 총 14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정환 기자

유성구 노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과 소통의 시간 가져



대전시 유성구 노은2동(동장 백준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정순)는 27일 노은2동 주

민센터에서 관내 소외된 이웃 13명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중 하나인 <예쁨 특! 특!>사업으로써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 치러진 행사이다.

노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다과를 준비하고 말벗이 되어 정서적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이·미용 서비스는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져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유정순 위원장은 "어려운 시간을 내어 재능기부를 해주신 재능기부봉사자박성규, 이경미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눔을 실천하여 어려운 이웃을 촘촘히 살피는 노은2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시행

한전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정순)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시행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

본부,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를 위해

한전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행사비용 1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박병욱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60여명이 직접 김장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국전력 임

직원과 봉사자들은 2000kg의 김치를 정성스레 마련, 대전지역 지역아동센터와 이동전문보호시설,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했다.

앞으로도 한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소외계층 대상 나눔활동을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

송병배 기자

희망은 더 높게 행복은 더 크게

당신과 함께 크는 금융 MG새마을금고

- 총 자산 154조
- 1,900만 고객
- 전국 약 3,200개 영업점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특별한 소비생활, MG카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MG새마을금고 사회공헌활동

- 과연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것은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될지 모른다
- 행동 할지 모르지는 모르지만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될지 모른다
-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금융소외계층을 돕는 MG새마을금고의 공헌과 실천

● 통 정 ●●●

전국체육대회 성과보고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28일 오후 3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성과보고회에 참석.

대전시티즌준플레이오프경기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28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시티즌 준플레이오프 경기에 참석.

판암2동 빨래방개소식



황인오 동구청장= 28일 오후 5시 행복한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판암2동 빨래방개소식에 참석.

2018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박용갑 중구청장= 28일 오후 5시 30분 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8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공공화장실 관리인 교육



장종태 서구청장= 28일 오후 3시에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8년도 공공화장실 관리인 교육에 참석.

판매수익금 기탁식



정용래 유성구청장= 28일 오전 10시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평생학습원 수강생 작품발표회 판매수익금 기탁식에 참석.

산학협력 창업 페스티벌



박정현 대덕구청장= 28일 오후 3시 45분부터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한남대학교 산학협력 창업 페스티벌에 참석.

서구, '미세먼지 알리미' 통해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제공

미세먼지 유해성 홍보·예방 강화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7일 대전 최초로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홍보 및 예방 강화를 위해 내달 중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운영한다.

이번에 설치할 '미세먼지 알리미'는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응(마스크 착용, 실외활동 자제 등) 조치하고 예방하여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소 야외활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엑스포 시민공원, 남산공원 입구, 월평공원 입구, 서구청 앞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설치하고, 추후 주민 반응 및 효과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알리미는 대기

오염물질 정보를 이모터 쿤(미세먼지에 따른 캐릭터 변화)과 색상(좋음-파랑, 보통-초록, 나쁨-노랑, 매우 나쁨-빨강)으로 표출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미세먼지 정보뿐만 아니라 오존, 날씨 등 기상정보까지 제공한다.

서구는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 발령 시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노약자 및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 등 실외활동 자제,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는 야외수업 금지, 중·고등학교는 야외 수업 자제, 운전자는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업장의 작업시간 단축 등 미세먼지 대응 대응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봉관 기자

동구, 동절기 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내년 1월 4일까지... 노인복지시설 162곳 안전상태 조사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오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교실, 일자리지원기관 등 관내 16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동절기 폭설, 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화재 대비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파난로 확보 및 방화문 설치 ▲배선용·누전차단기 작동 ▲가스누출 경보 차단장치 ▲소화기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 안전관리 ▲화천기 대비 자연재난 대비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보수하고, 시설종사자를 대

상으로 재난대응에 대한 자체교육 및 안전교육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작은 위험요소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 주민센터와 시설 관계자 등과 협력해 이번 점검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전 확보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서 만든 게임 대전서 즐긴다

2018 대전 게임콘텐츠 페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대전 게임콘텐츠 페어'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 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18 DICA 페어대전정보문화산업 융합전시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전 게임콘텐츠 페어'는 지역 기업이 개발한 우수 게임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회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게임을 전시해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전은 VR·AR 기반 시뮬레이션 게임을 집중 육성해 올해 기

업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22% 성장했고 대전에서 개발한 게임이 국내외 VR 플랫폼에 탑재 20여 곳에 진출하는 등 폭발적인 성과로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전 계내 임산업을 대표하는 12개 유망 게임사가 참가해 VR·AR,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까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소개하며, 국내외 바이어와 맞춤형 비즈 매칭을 통해 구매계약, 업무협약 등으로 사업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대전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 가능해 게임과 ICT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기술의 발전을 확인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게임분야에 취업 기회를 모색하는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진로탐색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찬중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대전은 특화 분야인 VR·AR 기반 시뮬레이션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평소 접하기 힘든 차세대 게임콘텐츠를 함께 즐기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지원에 받아 대전글로벌 게임센터를 통해 게임개발과 마케팅, 인력양성 등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게임기업이 14개에서 78개로 증가하고 연간 1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며 "경찰 조직 내에서도 더 많은 나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사랑의열매의 방문 소식을 접한 경찰들이 심시일반성금을 모아 이상로 청장과 함께 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매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800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해왔다.

송병배 기자

유성구, 지역민이 만드는 먹거리 정책 추진

"도시형 푸드플랜 수립·정책추진"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도시형 푸드플랜 연구용역 완료에 앞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성구를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주민과 공감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거버넌스를 더욱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푸드통합 지원센터를 도시형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거점플랫폼으로 활성화하여 먹거리 공공성과 기본권

을 강화하고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이슈를 통합·관리해왔다.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유치원과 어린이집 500개소에 대한 지역농산물 식재료 공급과 지역먹거리 활용 가공식품 생산, 직매장 등 관련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용래 구청장은 "먹거리를 매개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먹거리 사업이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도시형 푸드플랜 수립과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중구, 제4회 대전갈국수축제 평가보고회

재방문의사·지속개최도 부분 높은 평가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지난달 개최됐던 '제4회 대전갈국수축제'에 대한 평가로 축제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평가보고회를 27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갈국수축제 평가를 주관한 충청문화관광연구소 이희성 교수는 300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약 9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83.1점(100점 기준)의 재방문의사를 보였다.

음식의 맛과 종류, 가격과 청결 부분이 80점대 후반을 나타내며, 먹거리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 또한 타인에게 축제를 추천할 의향도 82점을 보이며 지속적인 축제 개최에 대한 시민 기대감을 나타냈다. 올해 시도된 통발놀이 터와 에어바운스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다양한 구·검사능력 배양, 첨단 분석기법 습득, 각종 환경 학습세미나 참석 등으로 선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산지였던 대전역과 그 일대에서 성행했던 밀가루 음식으로 확대해 기성세대의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시대상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 ▲갈국수의 상징적 공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갈국수 음식점 밀집지역으로 축제장 연계 ▲부대 공간 운영도성 ▲축제 상징물 제작 개발 ▲차별화된 주제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됐다. 개최시기도 봄철 미세먼지, 우천 등 기후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와 같은 가을 개최를 추천하기도 했다.

박용갑 청장은 "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58.8%가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갈국수를 꼽았다는 점에서 우리 축제의 당위성이 확인됐다. 올해 시도된 통발놀이 높은 만족도를 보며 갈국수를 통해 먹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2019년 대전갈국수축제의 해에 발맞춰 제5회 대전갈국수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대전의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덕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민주시민교육 추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열어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7일(화) 구청 청법관에서 '2018 대덕구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평생학습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

연계 민주시민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자들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대덕구 중점추진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SDGs 연계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며 서로 지

혜를 모았다.

워크숍은 SDGs 이해를 위한 강의와, 원탁토의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지역별 4개 과제를 선정해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17개 목표에 대한 개인 실천전략을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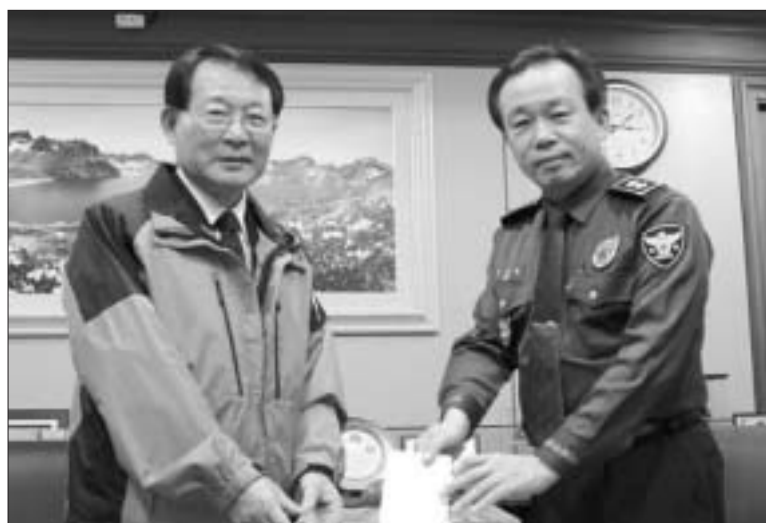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이날 대덕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날 도출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목표 우선순위와 결과물은 구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다.

대덕구 교육공동체과장은 "2019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이상로 대전경찰청장, 나눔문화 활성화에 뜻 모아

"사회약자·소외계층에 온정"을



희망2019 나눔캠페인을 맞이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나눔 문화 활성화에 대한 뜻을 전하기 위해 안기호 대전 사랑의열매 회장이 27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날 안기호 회장은 사랑의열매를 전담하며 '희망2019 나눔캠페인'을 맞이해 첫 번째 오피니언 리더로서 사랑의열매를 전담하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사랑의열매를 통해 더욱 따뜻한 온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로 대전경찰청장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돕는다

청양군, 하반기 소상공인 정부융자금 이자지원... 12월 19일까지 신청·접수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융자금 이자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8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정부융자금 이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청양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

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융자받은 원금의 올 하반기 이자발생분에 대해 약정 금리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지원

신청서,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2018년 하반기 이자납부 확인서 및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3년간 주소이력 포함)을 지참해 군 지역경제과 시장육성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11년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자를 지

원해 오고 있다.

군은 올해 상반기 109명의 소상공인에게 59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왔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59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원을 특별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 출범

서산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산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구본봉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면직 공무원 1명, 유관기관, 전문가, 청년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원들은 2018년 서산시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민

선7기 일자리종합계획에 반영될 사업 및 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구본봉 부시장은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요구(NEEDS)를 일자리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4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대전식약청 캠페인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소비자가약품안전회 대전지부와 함께 불법 마약류 퇴치와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29일 권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등에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와 의약품 오남용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도 함께 배포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마약류의 정의와 종류 ▲불법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폐해 ▲온라인 구매 등 의약품 불법유통 금지 등이 실시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현재 활동 중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위촉기간이 오는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도시계획, 건축, 주택, 교통, 환경, 조경(경관), 방재, 토질 및 기초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로 자격은 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된 자로 일정기간 이상의 자격

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7일간이며 접수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접수하거나 우편(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이메일(supabuz@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 응모자를 대상으로 내부심사를 거쳐 20여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선정하는 한편, 여성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분야 전문가 중에서는 여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된다.

기타 공개모집 관련 세부내용 및 관련 서식은 아산시 홈페이지(www.asan.go.kr)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아산시 도시계획과(041-540-2432)로 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롯데마트 노은점, 온가족 건강 '황시마스크'로 챙기세요

대대적인 행사와 미세먼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고객이 27일 오전 롯데마트 노은점을 찾자 황시마스크 등 다양한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지하1층 위생용품 코너에서 판매하고 있는 황시마스크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사이즈는 소형과 중형, 대형 크기로 나뉜다. 이밖에도 2층 생활용품 매장에서는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한 공기정화식물,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아이템도 선보인다.

천안시 서북구 체납액 징수 총력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순남)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북구는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콜센터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자가 생계곤란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을 안내하는 등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조세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임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174명 3억 8400만원의 경·공매 체납액 징수 효과를 거뒀다.

한편 올해 공매예고는 59건 11억 300만원으로 예고 중 완납 8건 8600만원, 분납 13건 4300만원, 공매의뢰예정 11건 1억 9200만원, 기타채권 확보 27건 7억 8200만원 등이다.

임국환 서북구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아산권지사 영인면에 후원물품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아산권지사(지사장이강우)가 지난 26일,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김영숙)에 백미 10kg 58포를 기탁했다.

해마다 한국수자원공사 아산권지사는 직원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물품을 구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미를 후원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이 없도록 따뜻한 겨

우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정희 단장은 "영인면의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해마다 온정을 나눠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영인면도 늘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는지 살펴줬다"고 말했다.

김영숙 단장은 영인면의 이웃들을 생각해주시는 마음을 잊지 않고 늘 봉사에 힘쓰는 행복키움추진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우 지사장은 "우리 아산권지사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늘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을 통해 각 마을별로 추천된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지역자원봉사단 초청 '숲속 재능나눔'

장성숲체원, 직원들과 지역자원봉사단 파이팅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7일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방장으로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지역자원봉사단을 초청, 봉사활동 격려와 함께 자원봉사단의 자긍심 고취 및 활동의지를 독려하고자 '숲속 재능나눔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성숲체원 직원들과 지역자원봉사단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10회 창의적 개념설계 공모전’

한발대, 제품화·특허출원 가능성 높은 작품들 다수 출품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27일 대학 내 창의학습실에서 ‘제10회 창의적 개념설계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밭대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이종근 교수)가 주관하는 이 공모전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학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너지절감·적정기술 분야의 아이디어 개념설계 작품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에서 ‘자율형 부유물 질 측정기 및 트랙터’, ‘분리형 필

터블 가진 운동형 초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팁블러 세척 장치’, ‘물레카메라 탐지 폰케이스’, ‘음료의 질 향상을 위한 온도유지용 컵홀더’ 등 학생들의 변칙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23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작품에 대한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맡고, 각 특별 출품작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창의성, 기술성 및 완성도, 생산가능성 등이 높은 작품을 우수작으로 7점을 선정한다.

김정환기자

보령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오는 29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려



보령시는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보령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제1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연말을 앞두고 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지역예술 합창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발표 능력을 향상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연주회에서는 서울 세계아카펠라대회 팀 부문 아시아 1위, 세계 2위를 수상한 실력파 아카펠라 그룹인 메이트리와 함께 클래식 기타 나주성, 소프라노 임지원 씨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공연의 열기를 띄우고, 소년소녀합창단은 그간 바쁜 학업 외중에도 틈틈이 준비한 ‘친구’, ‘소원’ 등 우리 가요와 뮤지컬 메들리, 세계 민요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령=김정미기자

제1회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실시

대전교육청, 120분 공론화 과정 통해 교육 정책의 방향 모색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7일 호텔 ICC 컨벤션홀에서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1회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는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교육감 공약’을 주제로 교육감, 학부모, 시민 150여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열린 원탁회의 형식으로, 공감사업 10개를 토론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선택한 토론 주제에 따라 14개 원탁으로 나누어 8인의 원탁별 토론에 참석했으며, 퍼실리테이터의 진행과

중재로 참석자 모두가 발언하고 모두가 경청하는 토론으로 교육공동체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대전형 혁신학교 창의인재씨앗학교’ 등 토론 주제별로 사전 배부된 토론 자료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와의 질문·답변을 통해, 현안사업과 향후 추진 사업을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는 보고 중심의 일방향 회의에서 벗어나, 공유와 토론 중심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공감하는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김정환기자



양평치유미술 감질 근절 선포식 국립양평치유미술작업실이 27일 경기 양평군 양평면 국립양평치유미술에서 열린 ‘감질 근절 선포식’ 행사에서 송재호 센터장에게 감질 근절을 위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수평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감질문화 근절 확산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 한국에너지효율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13.5% 초과한 37.51% 감축 성과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7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0회 한국에너지효율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에너지효율대상’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하고 전기차 및 수소차,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아산시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전기, 가스, 유류 절약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2017년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24%)의 13.5%를 초과한 37.51%를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그동안 기존 공공건물은 에너지 진단 후 연차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실시했으며, 신축 공공건물은 패시브 하우스 인증 등 친환경 고 효율에너지 절약형 아산시 중앙도서관 등 4개소를 신축하고, 신규 관



용 차 구입 시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 열을 모두 재이용 또는 판매해 에너지 절감(167,787Gcal/년)과 세외수입(28억 원)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공공 하수처리장 내 소화조 열병합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가축분뇨 처리장의 액비열병합발전 시설과 매립장 유류부지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환경기초시설이 3,770MWh/년 전력생산과 26,000

톤년 온실가스저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거듭나고 있다.

또 2015년 선정된 주민주도형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을 통하여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원을 마을세탁공장, 파프리카 농장 등 주민소유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기피시설에서 해피시설로 인식전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충남최초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시작해 1,000가구 이상의 보급실적 내고 있다. 또한 그린홈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

양열·지열·연료전지) 2,070호에 보급하는 등 인구 30만 중도시중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간 온실가스 1,830톤/년을 저감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165대를 민간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3기를 구축했으며, 충남 최초 전기 시내버스 보급해 12월에 정기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 최초 2019년 수소버스시범 6대 도시에 선정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오세현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며, 특히 수소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과 수소경제사회 진입의 문을 선도적으로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산=리광주기자

청양군, 민방위의 날 전

군민 화재대피훈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7일 제409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 군민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제천·밀양 화재, 고양터미널 화재, 세종중앙병원 참사 등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건물내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민방위대가 편성된 직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시설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 당일 오후 2시 라디오를 통해 화재발생 상황이 전파되면 건물주나 건물관리자는 화재발생 상황을 알리고 건물내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대피요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 안전한 대피장소로 대피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세종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능동적 공직문화 조성

감사위원회, 시청 공무원 대상 감사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가 27일 시청 여민실에서 시청, 읍·면·동, 사업소 등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관련 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공무원 등에 징계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이번 교육에서는 감사원 권오복 공공기관 감사과장을 초빙,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관련 사례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실시됐다.

이어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이 예산·지출, 보조금 집행, 계약,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감사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사안별 징계 기준, 회수나 환수 등 감사지적에 대한 사유 처리 절차 등을 질의하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강희동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당진 고대농협,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앞장

고대면 슬하리에 꽃동산 조성 등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



당진 고대농협(조합장 최수재)은 지난 26일 당진시 고대면 슬하리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대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농협 당진시지부 임직원, 고대농협 임직원 외에도 슬하리 마을 주민 등 모두 7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은 감나무와 대추나무 등 조경수를 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꽃동산도 조성했다.

또한 농약과 병방 등 생활쓰레기의 배출을 위한 수거함을 설치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벌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 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농협 당진시지부 이석우 지부장은 "현재 농촌마을엔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공동 집하 시설이 부족해 마을 주변과 농경지에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가꾸 실기 좋은 농촌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금융동향 및 기업맞춤상품 설명회’

농협대전영업본부, 대전/충남/세종 중소기업인 대상



농협중앙회 대전영업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유성구 레전드호텔 2층에서 대전/충남/세종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추진단 유상현 단장의 강의로 『최근 금융동향 및 기업맞춤상품 설명회』를 실시했다.

강의종료 후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그동안 중소기업인들이 궁금했던 금융정보 및 기업 맞춤형 금융상품에 대한 이용방

법 등을 숙 시원히 해결해주었다. 대전영업본부 신인식 본부장은 "이번 강의의 통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유익한 금융정보를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 강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고객만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최종 워크숍

대덕구, 정책 모니터링 결과공유 후 역량강화 특강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은 지난 27일 을 한해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정책 모니터링 활동 내용 및 개선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총 39명으로 구성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올해 7월 까지 공원·공공시설·학교 및 공동주택단지 등을 중심으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여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 모니터링 해왔다.

참석자들은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 반영해 개선된 사항을 공유하고, 외부강사로부터 성인지역향상과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특강도 함께 들었다.

김태선기자

공주시, 새로운 ‘정부24’ 이렇게 이용하세요

민원업무·정책정보·정부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공주시(시장 김경섭)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서비스를 한 번에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24’를 확대 개편한 ‘정부24’를 통해 공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정부24’는 기존에 정부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로 나뉘 제공되던 메뉴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를 한 화면에 배치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대표 포털이다. ‘정부24’에서는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하던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부서비스 7만여 건을 모아 주제별로 안내·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24’에서 제공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주요 상황별로 민원과 정부서비스를 함께 안내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민 편의를 높였다.

특히, 건강, 세금, 병역, 연금 등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42종을 안내하고, 출산에서 노후까지 생애별로 필요한 서비스(혼인 → 출산 → 취학 → 이사 → 상속)를 한 곳으로 모아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민원발급 수수료 지불방법도 신용카드, 계좌이체 방식에 더해 카카오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 방식을 적용해 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민원24(www.minwon.go.kr) 회원이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활용 동의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최상욱 시민봉사과장은 "편의기능이 강화된 ‘정부24’를 시민들께서 더 편리하게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소년원, 마음나루쉼터 개관식

다목적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실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영호)은 27일 학생들이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소그룹 상담 등 다목적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실인 '마음나루쉼터'를 조성, 개관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교직원 및 윤태연 ㈜태민건설 대표이사과 양길모 (사)중우회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마음나루쉼터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수용환경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치료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며 기존 사용하지 않던 생활실을 ㈜태민건설이 1개월 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약 3천만 원 상당을 하여 완공하였다.

윤태연 ㈜태민건설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의료 소년원 학생들의 재활·치료 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 바른 심성을 가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이 날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학생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씨앗이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성범기자



서산소방서, 제409차 민방위의 날 맞이

골든타임 확보 위한 길 터주기 훈련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제409차 민방위의 날 맞이하여 동부시장과 터미널 일대에서 서산시의 합동으로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을 실시한다.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며, 골든타임이란 재난 발생시 5분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신속한 출동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전통시장에 진입해 실제 동행훈련을 실시하며 불필요한 좌판 등 적체물을 정리하는 등 시장 내 출동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지 등도 함께 배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대전전문건설협회 대전시지회, 350만원 상당 전기매트 기탁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청사 구인사령방에서 대전전문건설협회 대전시지회로부터(회장 김양수)전기매트 50개(350만원 상당)를 기탁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매트는 지역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복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1사단 군정병 감사편지 전달 정복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왼쪽)은 지난 26일 강원도 홍천에 소재하고 있는 11사단을 방문해 복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편지와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실시된 식품·의약품·축산물 분야 등 대전 보건환경연구, 숙련도 평가 '양호'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실시된 식품, 의약품, 축산물 분야 등 3개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아 분석능력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숙련도 평가는 시험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향상과 시험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

년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국내·외 12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양호, 보통, 미흡의 세 등급으로 평가된다.

올해 숙련도 평가 내용은 식품 분야 영양성분, 식중독균, 유전자 변형식품, 잔류농약 등을 비롯해 화장품분야 중금속, 축산물 분야

산화방지제, 한우유전자 확인 등으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항목에서 '양호'를 획득, 기관평가 '양호' 판정을 받아 분석능력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대전시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도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능력 및 품질 관리면에서 우수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

세종시제409차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7일 제409차 전국 화재대피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민방위훈련 지침에 따라 별도 사이렌 발령이나 교통통제 없이 14시부터 20분간 공공기관 건축물과 시설 종사자 위주로 라디오 심황 방송을 통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관광서 ▲공공기관 ▲학교를 비롯해 ▲CGV 등 다중이용시설 ▲호려마을 아파트 5단지 ▲도래마을 아파트 11단지 등 고층아파트도 함께 실시해 시민들이 화재 시 행동요령을 숙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훈련 중 한마을호요양병원에서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지침과 자체 매뉴얼에 따라 60여 명의 종사자가 일원화 지령 유도, 신속히 대피하는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세종=김태선기자

화재와 폭발 동반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합동훈련

금강유역환경청, 민·관 참여 합동 훈련 실시



금강유역환경청 청장 김동진, 이하 금강환경청은 11월 27일 오후 2시 솔브레인㈜ 공주공장에서 화재와 폭발을 동반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제409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황화수소(유해화학물

질저장탱크에서 원인미상으로 발생한 화재 폭발에 의해 황화수소가 유출되는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민·관이 참여한 훈련으로, 금강환경청, 솔브레인, 공주소방서 등 관계 기관 70여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훈련에서 솔브레인㈜의 자체소방대가 소화장비와 방재장비 등을 활용하여 초동대응을 실시하였고, 금강환경청은 유출된 유독물질의 현장오염도 측정 및 안전조치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금강청은 지난 11월 21일에도 청주지역 화학안전공동체 주관사 ㈜LG화학 청주공장과 합동으로 화학물질 유출을 가정된 훈련을 실시 한 바 있고 금강환경청은 화재사고 대응 민·관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진 금강환경청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원활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서는 사업장 자체 대응절차 숙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기업과 유관기관 간의 합동대응능력이 향상되어 지역의 화학사고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북한이탈주민과 김장담그기 행사

아산시, 겨울철 북한이탈주민들의 김장지원 위해 마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26일,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사무실(온양온천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아산시 여성가족과, 아산경찰서 보안과, 충남하나센터, 북한이탈정착도우미, 하늘빛봉사단원, 북한이탈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로 2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착도우미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며 소통과 화합을 기하며 겨울철 북한이탈주민들의 김장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아산 담근 김치 630포기는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되고, 행사장을 찾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140가정에도 전해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과 만나 서로 어울리고 나눔을 실천하며, 또한 겨울철 김장까지 지원받게 되어 더 힘이 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윤연옥 여성가족과장은 "아산시에는 42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는데 온정이 담긴 김치가 추운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만들고 나아가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대형 인명피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가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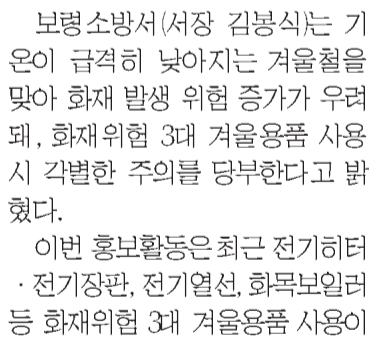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감과 시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보령소방서,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당부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 맞아 대대적 홍보활동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위험 증가가 우려돼,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사용시 각별한 주의사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전기히터·전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해 주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게 됐다.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사용시 주의사항은 ▲전기매트는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하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기 ▲사용 후

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 ▲문어발식 전기 사용금지 ▲화목보일러 취급시 주변 가연물 방지 금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대다수가 취급상 부주의가 원인임을 인식하여 평소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실천하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태안소방서, 이통장 대상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지난 26일 태안읍사무소에서 이·통장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중요성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에 따

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는 층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2%인 반면, 화재 사망

자 비율은 50.1%가 주택에서 발생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협의회를 방문하여 주택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피해가 저감된 사례를 소개하며 설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주택용소방시설 사용방법 등 교육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태안소방서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육과 주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태안=김정환기자

동절기 의용소방대 청사대기근무

예산소방서, 화재 예방 및 신속한 화재출동 위해 실시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화재 위험요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화재 예방 및 신속한 화재출동을 위하여 예산소방서 관할 의용소방대가 청사 출동대기를 실시한다.

이는 관할 지역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청사대기근무는 11월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

월 간 이루어질 예정이며, 전담의용소방대 8개 대 및 소방차량보유 의용소방대 4개 대가 3인 1조로 화재 출동대기, 화재진압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개인안전장비 일일점검 및 조직숙달훈련을 실시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위험물 취급공장 및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화재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안전전 의용소방대장은 "화재취약기간 중 소방관서와 원거리지역의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 및 대응을 통하여 예산군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양성업기자

대전교육청, 대전교육 갑질 근절 계획 수립

교육현장의 '갑질 행위' 유발 제도와 문화를 바꾼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 교육 공직사회의 소통과 배려의 상호 존중문화를 정착시키고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대전교육 갑질 근절 계획'을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관행'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갑질'을 유발

하는 제도와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갑질' 근절 문화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한다.

대전교육청은 기관(학교별 '갑질' 예방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해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에 따른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질을 함양할 계획이다. 또한,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해 수평적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초

등교육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력·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특히,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갑질'에 대해서는 기관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신고 및 처리, 지원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시교육청에 구축해 '갑질'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심리상담, 2차 피해 방지, 보호

조치 등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대전교육청 류준열 감사관은 "이번 상호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근절 계획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민원인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교육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합동 조사

세종시교육청·세종경찰서·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지난해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 조사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관내 77개 학원, 총 126여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종문화예술회관 앞 주차장(11월 26일), 세종호수공원 제3주차장(11월 27일~11월 28일)에서 3일간 진행된다. 주요 조사 사항은 ▲학원 어

린이 통학차량의 신고 및 안전장치 구비 여부 ▲차량등록정보 진위여부 ▲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이수여부 등이며, 등록된 차량을 직접 대면하여 확인·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실태조사로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망을 확보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당진 한정초, 우리 모두가 주인공 '별별 콘서트' 개최 당진 한정초등학교(교장 성기동)는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빛관에서 학부모 등 여러 관객들을 모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공연의 일환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별별 콘서트를 개최했다.

청양초, 학교발전기금 전달식 '훈훈'

청양초 남자 56회 졸업생, 여자 42회 졸업생 학교발전기금 기부



청양초등학교(교장 이덕범)는 11월 24일 청양초등학교 남자 56회 졸업생, 여자 42회 졸업생 일동에게 학교발전기금 69만원을 기부 받았다.

남자 56회 졸업생, 여자 42회 졸업생 일동은 "졸업생들이 모은 소중한 학교발전기금을 행복한 청양초등학교를 만드는데 소중하게 사용해 달라"며 전달

소감을 전하였다.

청양초등학교 이덕범 교장은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신 남자 56회 졸업생, 여자 42회 졸업생 일동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양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고, 중학교 3학년 대상 입학설명회



아산고등학교교장 김철수는 2019학년도 내고장학교 다니기 일환으로 27일, 현재 중학교 3학년 남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신입생 유치에 위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해 보는 유익한 자리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식전행사로 아산고의 2017년도 학사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과 각종 교내의 활동들을 담은 동영상 시청하고 학교장 환영 인사, 김법진 교감의 아산고 특색과 장점, 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결과를 중심으로 학교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기숙사와 학습동아리인 상아반 교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개별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별도로 교사와 1:1 매칭 상담도 진행했다.

김철수 교장은 "고등학교 진학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학교를 둘러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교에서 자체 입학설명회를 마련했다. 많은 관심과 유익한 정보로 소통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산교육지원청, 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

서산교육공동체 화합과 소통 위하여 진행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은 12월 4일(화) 오후 6:00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회 서산교육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이하여 서산교육공동체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서산의 각급학교 교장·교감·운영위원장·학부모·교직원 등 모두 참여하여 엄격한 예식을 거쳐 선정된 18팀의 경연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종합대상 1팀에게는 100만원, 최우수상 1팀 70만원 등의 상금과 종합우승팀에게는 학교발전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응원 및 관람객들을 위한 경품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렬 서산교육장은 "이번 제2회 서산교육가족어울림 한마당을 통하여 서산교육가족들이 마음껏 끼와 재능을 발산하여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동부교육지원청, 동부 지역 중학교 교감 40여명 대상 실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은 27일 계룡산자연사박물관에서 동부 지역 중학교 교감 4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년)제 및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2018 교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자유학기(년)제와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교감선생님들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장이 되었다.

계룡산자연사박물관 조한희 관장이 "Leading green museum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했다. 창의성과 윤리적 덕목을 함께 구비한 창의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자연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박물관을 통한 그린교육의 적용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했다. 특강 후에는 박물관을 둘러보며 견문을 넓히고, 주변을 신중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환기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행연수 강사 요원 협의회

예산교육지원청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우리가 먼저 준비해요"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특수교육 협의회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행 연수에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할 관내 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29일 예산 관내 교감, 교무부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9학년도 충남 참학력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및 실행연수'에 앞서 분임토의 활동 내용 협의 및 역할 분담, 실행 연수 사전 점검 등으로 진행했다.

충남 참학력 교육과정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모의 과정을 실행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지역 특색 및 규모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단을 파견하여 참학력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예산=양성범기자

글놀이학교 동아리, 인문학콘서트 개최

아산교육지원청, 글놀이 동아리 운영 결과 전시 및 발표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은 지난 27일, 아산교육청 대회의실 및 대강당에서 아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글놀이학교 동아리 운영 결과 전시 및 발표회(인문학콘서트)'를 개최했다.

글놀이학교란, 아산교육지원청이 추진한 중점사업이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글쓰기로 표현하는 것을 놀이와 같이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독서와 연계한 글쓰기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기 주도적 삶의 태도 형성에 목적을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책읽기, 중등은 아산 행복지구와 연계한 동네 북(BOOK) 글놀이터, 초, 중, 고 학교별 특색을 살린 우리학교 글놀이 동아리 34개를 운영하도록 지원했다.

본 행사는 각 학교에서 운영했던 동아리활동 결과물 전시마당, 학생들이 창작한 문학작품시, 소설 등을 노래와 연극 등으로 표현, 동아리운영 사례를 발표하는 발표마당을 통하여 그동안의 배움을 나누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계획한 행사이며 인문학콘서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전시마당은 초, 중, 고 34개 동아리활동 결과물이 전시됐다. 발표마당은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인형극단 반딧불이이야기의 '빼송임금님' 공연, 시낭송, 연극, 플래시몹, 동아리운영 결과 발표 등의 학생대상, 초청강사인 유머코치 최규상의 평생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유머라는 주제의 특강, 릴리스트 성승환의 '시네마콘서트-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연주 및 특강이 이어졌다.

아산=리량주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6일 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2018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인근 지역사회 어르신 60여명이 참여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강사가

강의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인권의 정의, 인권감수성, 차별과 평등의 이해, 노인인권의 영역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송병배기자



2018 세종교육 UCC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난 26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8 세종교육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세종시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학급 일상, 학교 자랑, 학생회 등 학교생활스토리를 담은 총 70여 편의 UCC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으뜸상 3개, 버금상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특 정 ●

교통연구원의 업무협약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28일 오후 4시 30분, 세종시교육청 3층 집견실에서 교통안전교육 및 학생안전체험시설 지원 등을 위한 「교통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

세종시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세종광역시치매센터가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를 열고, 올 한 해 치매관리 사업을 평가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성수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해 시정, 보건소,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위원, 치매환자 및 가족, 봉사단, 치매극복선도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치매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18년도 세종광역시치매센터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방향,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치매안심마을운영사업 발표, 힐링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치매관리사업 선도극복도서관 범지기마을 1단지 푸른작은도서관의 우수사례와 세종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교실 우수 사례가 발표됐다.

세종치매안심센터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종시 내 치매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관리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란 세종광역시치매센터장은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기 위해 한 해 동안 힘써주신 치매관리사업 모든 관계자들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세종시 치매관리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보물지정

예산군, 18세기 중엽 충청도 지역 괘불 제작 경향 반영... 조선 후기 불화 연구에 중요



예산군은 27일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大連寺 毗盧遮那佛 掛佛圖)가 보물 2006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예산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는 1750년(영조 26) 축명, 사해 등 4명의 화승이 조성한 것으로 세로로 긴 화면에 비로자나불을 중심에 배치하고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상하로 그려 오존(五尊) 형식을 취한 구도이다.

축명을 비롯해 이 괘불 조성에 참여한 화원들은 대부분 1741년(영조 17) '천안 광덕사 삼세불도와 괘불도'를 제작한 인물들로서 얼굴에 비해 좁은 어깨, 뾰족한 육계, 턱이 둥글고 살진 보살의 얼굴, 김쪽한 귀 등에서 공통적인 화풍(畫風)을 찾아볼 수 있다.

일목요연한 구도와 날씬하고 비례가 적당 한 인체표현, 붉은색, 하늘색, 분홍색 등 밝고

부드러운 색채의 사용 등은 18세기 전반 충청도 지역 불화 양식을 계승했음을 잘 보여 준다.

19세기 이전 조성된 비로자나불 괘불도는 남아있는 예가 거의 없으며 현존하는 작품은 석가모니불, 노사나불과 함께 삼신불(三身佛)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이 괘불도는 유례가 드문 오존(五尊)으로 구성된 작품이자 18세기 중엽 충청도 지역의 괘불 제작 경향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작품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사찰문화재 중에서 조사되지 않은 문화재가 있다"며 "앞으로 사찰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밝히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사상최대국비 성과 잇자 국회 방문

나소열 부지사, 조승래 예결위원장 등 만나 지원 요청

충남도가 내년 사상 최대 정부예산 확보 성과를 잇기 위해 국비 확보전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나소열 도 문화체육부지사가 국회를 찾았다.

나 부지사는 27일 국회를 방문, 조승래, 서삼석, 박홍근, 민홍철 의원 등 예결위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나 부지사가 이날 들고간 현안은 총 7개로 ▲당진~천안간

진~아산 구간 고속도로 ▲충정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성 개량 2단계 건설 ▲옛8도청사 국가매입예산 확보 등이 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구기자

민관협력 우수사례 '행복맘터' 전국에 전파

제3회 지방행정혁신 브랜드과제 협업 포럼서 발표

민관이 협업해 추진하는 임신-출산-육아-교육-재취업 분야 통합서비스 '행복맘터(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제3회 지방행정혁신 브랜드과제 협업 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세종시보건소는 27일 세종종합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제3회 지방행정혁신 브랜드과제 협업 포럼'에서 이강산 소장이 직접 우수사례로 행복맘터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원스톱 서비스 분야 지자체별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추진단과 전국지자체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강산 소장은 행복맘터의 추진성과와 이용방법, 연계사례, 향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행복맘터는 시보건소와 10개 센터가 협력해 추진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간 12만 7,065명의 이용객에게 임신-출산-육아-교육-재취업 분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맘터를 통한 임신출산 서비스는 ▲임산부 지원사업 13종을 비롯해 ▲편리한 산후조리서비스 ▲요가, 태교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 ▲육아용품나눔사업 ▲육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센터

연계사업등의 자녀육아 서비스와 ▲프로그램 강사채용 ▲취업준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 등 여성의 재취업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출산환경 조성 분야로는 ▲아빠의 육아참여 확대 ▲행복맘 열린카페 조성 ▲유아놀이터, 엄마모임방 ▲육아 멘토-멘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행복맘터는 올해 6월에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지자체로 선정돼 특교세 3,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10월 개소 이후 1년간 전국 자치단체 14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

또 'QUARTZ' (뉴욕연론사)의 홍보지사에서도 행복맘터를 위해 보도했으며 국내 육아전문 저널 '베스트베이비'에서도 소개되는 등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소장은 특히 이날 발표에서 현재 개발 추진 중인 행복맘터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6월경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히 이목을 끌었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행복맘터는 공공형 직접 서비스와 민간형 간접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세종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행복맘터 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전화로만? 온라인으로도 민원안내 받아요"

세종시, 민원콜센터 업무상담 매뉴얼 홈페이지 개방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민원콜센터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업무상담 매뉴얼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온라인 민원안내를 실시한다.

그동안 분산·중복됐던 부서별 상담업무매뉴얼을 320여 개로 통합 표준화해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 공개에 따라 향후 민원인은 콜센터 전화상담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민원안내를 제공받

을 수 있게 된다.

매뉴얼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 시민의장 → 민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후 매뉴얼 수정·추가 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콜센터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2일간 2018년 민원콜센터 서비스 만족도 및 운영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3분야 27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시청 홈페이지(설문조사) 및 모바일 투표(세종의뜻), 읍면동 내방민원 설문, 전화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한유 민원과장은 "민원콜센터 업무상담 매뉴얼 공개를 통해 상담민원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예산=양성업기자

조치원읍-맥키스컴퍼니 복지사각지대 발굴 합심

이제우린 소주 30만 병에 홍보라벨 부착... 세종권역내 출시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종합행정복지센터(읍장 이동환)와 맥키스컴퍼니가 손을 잡고 '이제우린' 소주 병에 보조라벨을 부착,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27일 조치원읍에 따르면, 맥키스컴퍼니는 11월부터 새롭게 출시된 '이제우린' 소주 30만 병에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라는 라벨을 붙여 세종권역을 중심으로 출시한다.

보조라벨에는 홍보문구와 함께 복지종합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전화번호(044-301-5151~7)도 제시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환 조치원읍장은 "주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주를 활용해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Large advertisement for Hankook tires featuring the slogan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and '가장 '리얼'스럽게 달리는 기술' (The technology that drives most realistically). It includes an image of a car and a tire, and the Hankook logo.

동정

업무협약식



오세현 아산시장 =28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민원의 행복보...

약식에 참석.

중간보고회



김홍태 당진시장 =28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주재.

건립 협약식



가세로 태안군수 =28일 오전 11시에 군수 집무실에서 열리는...

석.

본회의



김기재 당진시의장 =28일 오후 2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참석.

언론브리핑 주재



김돈곤 청양군수 =28일 오전 10시 군청 브리핑실에서 군정현안 언론브리핑을 주재.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진행 '착착'

당진시, 2단계 친화도시 지정 1년 · 부서별 이행사업 점검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당진시가 지난 26일 김홍장 시장 주재로...



주시민교육 정책개발 ▲장애인 일자리 여성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업기계 활용 교육 ▲안...

'여행(女幸) 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당진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과 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비롯한...

반면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인증서 수여와 공공체육시설 안심벨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은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당진시는 각 부서별 이행사업의 추진사항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돌입하는 2019년부터 목표...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아산 신정호수공원 월동준비 실시

아산 신정호수공원사업소가 성큼 다가온 겨울에 대비 신정호수공원 내 수목 등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산책로변 및 잔디광장...

장미터널 6개 구간과 120m 산책로 주변 영산홍 등 관목에 거적덮기를 하고 배롱나무와 갈나무 등 교목에도 짚 싸기 작업을 실시하며...

또, 산책로 주변 데크(16곳)에 미끄럼방지 고무패드를 설치하고 신정호수 변 정자·벤치 등 휴식공간의 시설물 등을 보수해 신정호수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원 관계자는 "신정호수공원은 아산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철저한 월동준비를 실시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원 내 수목 등을 잘 관리하여 내년에도 아름다운 공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립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열려

29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로 선착순 입장



태안군립합창단(단장 허재권 태안부군수, 상임지휘자 한상식)

의 '제1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군민들에게 뜻깊은 연말을 선물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성악·해금·클래식 기타·합창으로 엮어가는 태안군민을 위한 음악회'라는 주제로 총 40명의 합창단원과 초청 음악인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이날 연주회는 태안군립합창단의 '고향의 노래', '가고파' 등 가곡과 '천안삼거리', '어강도리' 등의 민요 공연이 펼쳐지며, '그것만이 내세상',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거든', '격정말야요 그대' 등 서선=김정민기자

우리 귀에 익숙한 가요도 즐길 수 있다.

또한 특별공연으로 해금 김용선, 클래식 기타 장하은, 테너 이영화, 소프라노 오은경의 공연 등이 펼쳐져 겨울밤의 낭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무료로 예매 없이 선착순 입장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041-670-2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태안군립합창단은 2006년 창단했으며 정기연주회를 비롯, 다양한 행사에 초청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열린 '2018년 한·중 국제합창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서선=김정민기자

청양군 마을 일은 우리 스스로

운곡면 2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1년 맞아

청양군 운곡면 2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석근이 지난 30일 출범 1년을 맞았다.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위촉된 25명의 위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숨가쁘게 마을의 주민자치를 위해 힘쓰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운곡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 동안 해온 일들을 살펴보면 역시 사업은 비로 생활공구 대여사업이다.

2017년 마중물 사업 신청을 통해 채택된 생활공구 대여사업은 준비기간 1년을 거쳐 올해 5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주민들이 가정에서 구비하기 힘든 컵프레스, 절단기, 전기용접기를 비롯해 니퍼, 글루건, 드라이버 등 생활공구 50여종이 구비돼 있다.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어 공구구입비 절감은 물론이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인기가 높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충남 농업기술원 구기자 시험장과 부자농촌지원센터 등 올해 3차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썼다.

운곡 2산업단지에서 위치한 부자농촌지원센터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제품개발연구소, 구기자 중심 농산물 가공센터, 농산물 GAP 유통시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을 둘러보며 지역 농산물이 위생적으로 가공되는 공정을 견학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주에서 열린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해 부스별로 전시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관람하며 운곡면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올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준 것을 꼽는다면 아마 추석날 열린 '운곡면 추억의 풍물대회'일 것이다.

어린 시절 마을에서 열렸던 풍물대회를 통해 어른들에게는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고향을 찾는 출향민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자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운곡면은 주민이 모여 흥겨운 시간을 가진 자리였다.

특히, 2부 노래자랑 시간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한데 어우러진 시간을 가져 조용했던 마을이 모처럼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간이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운곡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최근에 처음이라며 대회를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석근 위원장은 "앞으로 1년 임기가 남은 운곡면 2기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에 봉사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더불어 살기 좋은 운곡면을 만드는 데 앞장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 공직자 창의혁신리더 양성교육 실시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공직자 4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창의혁신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시 회계과 마가 있는 맞춤 친절·청렴 교육



아산시 회계과과장 권경자는 지난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의 확산과 직원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하반기 친절·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테마가 있는 CS교육의 일환으로 상반기 주제인 친절은 습관이다에 이어 '진짜친절·진짜청렴은 마음으로부터다'는 슬로건으로 친절과 청렴이 하나 된 정신을 갖추기 위한 마인드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교육 후 직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친절과 청렴의 의미와 관계를 재정립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권경자 회계과장은 "마을에서 우리나라는 친절과 미소가 몸에 밴 공직자는 그 자체가 청렴이 아닐까한다"며, "앞으로도 '친절한 공무원·청렴한 아산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테마를 발굴, 맞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별동별 하늘공원 행성탐사대 운영



태안군 별동별 하늘공원이 오는 12월 4-5일 '이동형 천체투영관과 함께하는 행성탐사대'를 운영한다.

2018년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계층 간의

행된다.

우선 프레젠테이션과 영상을 이용한 천문강의와 천문 우주과학 단체체험(행성만들기)을 통해 참가자에게 우주에 대한 기본지식과 흥미를 부여한다.

이어 펼쳐지는 '이동식 천체 투영관을 이용한 별자리 수업'에서는 하늘을 닮은 원형 돔 구조의 천체투영관에 고해상도 프로젝터를 사용해 아름다운 밤하늘과 별자리,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생생히 구현해 참가자들이 우주를 실제 가깝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해가 진 후 실시하는 '수동 망원경을 통한 천체관측'에서는 학생들에게 망원경 조립을 통해 망원경의 구조를 교육하고 이후 조립된 수동망원경으로 화성과 더불어 페가수스자리, 카시오페아 자리 등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시간을 갖게 해 관내 초등학생들이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 별동별 하늘공원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기초 과학교육으로 과학교육의 흥미와 수준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학생을 포함한 많은 군민들이 우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별동별 하늘공원은 남면 곱섬로 37-18 일원에 대지면적 5,475㎡, 연면적 89252㎡(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생생히 구현해 참가자들이 우주를 실제 가깝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11m 지름의 천체투영관을 비롯, 600mm의 주망원경과 4기의 보조망원경을 설치하고 1층과 2층의 실내공간에 다양한 천체체험시설을 배치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태안=김정민기자



당진 해너루쌀 GAP인증 획득 인정성·소비자신뢰도 한층 높아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27일 당진을 대표하는 브랜드 농산물인 해너루쌀이 GA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당진 해너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박승석)은 50ha 45동가에 대해 GAP 재배 인증을 받아 GAP 해너루쌀을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GAP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로,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관리·유통의 각 단계에서 토양과 농업용수, 잔류농약,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센터는 GAP 인증 해너루쌀 출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농산물 우수관리(GAP) 종합시험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단지 회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토양과 수질, 농약안전사용 등에 대한 현장 기술 지도를 추진해 왔다.

당진 해너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이번 해너루쌀 GAP인증에 앞서 지난해 1월 첨단 도정시설을 갖춘 RPC 가공시설에 대한 GAP 시설 인증을 이미 받은 바 있어 해너루쌀에 대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올해 노인대학 수료식 열려

계룡시, 다양한 프로그램 이수한 노인대학생 수료증 전달

충남 계룡시는 27일 2018년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 부설 노인대학(대학장 김낙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최홍목 계룡시장, 박준엽 계룡시의회 의장, 김정수 노인회회장, 노인대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보고, 표창장 및 수료증 수여 등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올해 노인대학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건강체조, 노래교실, 인문교양, 경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 질 높은 강사진과 강의로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88명이 참여하고 이 중 필수 학습시간을 이수한 46명이 수료증을 받아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최홍목 시장은 "노인대학을 통한 어르신들의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달콤한 꽃감의 향연 양촌꽃감축제 열려

진성·김성환 등 유명가수 축하공연·감 짬뽕 체험 등 이벤트 '풍성'

'꽃감의 고장' 논산시 양촌면 감덕장에서 주홍빛 꽃감이 달콤하게 익어가는 계절, 제16회 양촌꽃감축제가 오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양촌리 체육공원에서 열린다.

'감빛 물든 그림음, 정이 물처럼 흐르는 햇빛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감 짬뽕 짜기, 꽃감시 말리 빨기, 송어 잡기 등 다양한 한체함과 이벤트 및 공시행사, 공연, 상설행사 등 4개분야 34개의 프로그램으로 멋진 겨울추위를 선사할 예정이다.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 사물놀이, 난타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개막식과 육군군악대공연 및 김성환,

김종하, 유동아, 하니영 외 다수 유명가수들의 축하 공연으로 축제의 서막을 알리며, 9일 폐막공연에는 가수 진성, 박서진 등이 출연한다.

제5회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제9회 꽃감가요제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리며, 색소폰, 국악, 통기타공연, 각설이(버드리)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한껏 북돋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달콤하고 쫄쫄한 명품꽃감은 물론 청정 햇빛촌에서 재배한 신선한 딸기, 상추, 굴취, 머위 등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감와인, 감초초, 꽃감차 시음회와 감으로 만든 가지각색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시식행사로 흥겨운 고향의



정을 나눌 예정이다. 논산시 공식홈페이지에서는 12월 9일까지 양촌꽃감축제 '인터넷 정보상대회'를 진행하며, 홈페이지에서 3개의 정답을 찾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양촌꽃감을 증정한다.

월 9일까지 양촌꽃감축제 '인터넷 정보상대회'를 진행하며, 홈페이지에서 3개의 정답을 찾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양촌꽃감을 증정한다.

문갑래 추진위원장은 "명품양촌꽃감과 청정농특산물 그리고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특별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촌꽃감축제는 풍부한 일조량과 신선한 북서풍, 높은 일교차의 자연건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양촌꽃감을 홍보하고, 양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대표적인 겨울축제다.

부여군 주민중심 열린 공간으로 민원실 리모델링

맞춤형 민원서비스(ONE-STOP) 제공으로 군민의 기대 부응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군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인 부여군청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다. 11~12월까지 약2개월간 5억여 원을 들여 그간 군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한다.

이번 공사는 부여군민의 특색을 담아 공간, 조명, 설치물, 색채 등 디자인적인 요소를 대거 도입해 밝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ONE-STOP) 제공을 위한 공간 조성에 집중했다.

특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 관련 민원처리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와 민원봉사과를 병행 배치하고, 군민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정보교류 및 문화

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타 계획이다.

또다소 높았던 민원대를 낮추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해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간 업무공간이 열려있어 정보 유출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던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고충상담실, 육아수유실, 건강관리실, 컴퓨터실 등 군민 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높일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실이 협소해 복합민원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어 민원실과 도시건축과 사무실을 통합, 복합민원 89%를 일괄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천군 장항읍 음식관광지로 새롭게 '부상'

어린이 위한 음식 메뉴 개발·시연회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및 맛나로(路) 활성화 향을 위한 어린이 메뉴를 개발해 장항 6080 맛나로(路) 20여개 업소와 장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대위 관광객 유치 및 맛나로(路) 활성화 향을 위한 어린이 메뉴를 개발해 장항 6080 맛나로(路) 20여개 업소

이 메뉴 레시피 전수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해 맛나로 거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달 수원대학교 문화콘텐츠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용역을 수행하며 어린이 메뉴 개발에 돌입했으며 새우강정 정식, 알밤정식, 돈까스정식, 치킨마요덮밥정식, 떡갈비정식, 국물떡볶이정식 등 다양한메뉴를 개발해냈다.

이날 시식회와 시연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음식 맛을 보고 요리법을 배우며 "성인 위주의 메뉴로 어린이들을 동행하는 관광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걱정 없을 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군은 새롭게 개발한 어린이 메뉴의 홍보를 위해 지난 17일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서 열린 금강철새여행축제장과 26일 시연회 자리에서 관광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해당 메뉴들의 레시피 북을 제작해 6080 맛나로 상인들과 장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정성 문화관광과장은 "우리군은 '문제부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맛과 멋이 공존하는 6080 맛나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6080 맛나로를 새롭게 떠오르는 음식 관광지로 부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천=김태성기자

장철 정사공신녹권 '보물'로 지정

유일하게 확인된 정사공신녹권·21년만천안에서 보물 추가탄생

천안에서 거주 중인 장철 후손의 소장품 '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錄券)'이 보물 제2009호로 지정됐다.

천안시는 장철 정사공신녹권이 보물 제2009호로 지정되며 천안에서 21년만에 9번째 보물이 탄생했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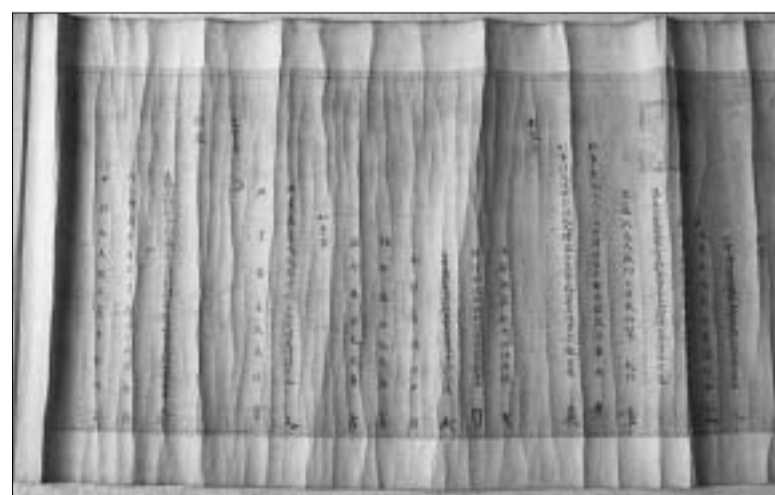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태조 7) 11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제1차 왕자의 난(1398년)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정사공신 29명 중 한 명인 중추원부사 장철(張哲, 1359~1399)에게 발급된 녹권(錄券)이다.

장철은 1388년 태조 이성계와 요동정벌에 참전했다가 위화도 회군에 동참해 조선의 개국에도 공로를 세웠으며, 이후 중추원부사 등

을 역임했다. 이후, 1398년(태조 7)에 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을 세워 정사공신 2등으로 책봉됐다.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탁종이에 상하 단변에 주사란(朱絲欄)을 긋고 공신호(功臣號)와 성명, 국왕의 명령으로 공신책봉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 공신의 공로와 관직, 포상 및 이와 관련된 관서별 업무분장, 녹권의 발급(시행일자 등을 한문과 이두(吏讀)를 혼용해 순서대로 작성했다. 마지막 부분에는 녹권 발급을 담당한 공신도감(이조(吏曹) 관원들의 관직, 성씨 및 수결(手決: 서명), 발급일자가 있다.

이 녹권은 정사공신의 공적과 포상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도감의 조직과 운영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자어의 순우리말 차음인 이두가 많이 사용됐고, 문서의 서식 또한 조선 초기 공신녹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고문서 연구에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확인된 조선 초기 정사공신녹권이며 역사적·국악적·서지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보

물로 지정됐다. 주성환 문화관광과장은 "장철 정사공신녹권 보물 지정을 계기로 관내의 문화재 지정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보물 제99호 천안 천흥사지 당간지주 등 8건이 있는 초기 정사공신녹권이며 역사적·국악적·서지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보

동정

후원의 밤

구본영 천안시장은 28일 오후 6시 30분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천안시복지재단 2018 후원의 밤에 참석.

농업대학 졸업식

최홍목 계룡시장은 28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계룡 농업대학 졸업식에 참석.

희망의대하

노박래 서천군수는 28일 오전 10시 농어촌공사서천지사에서 열리는 물관리현장 설명회에 참석,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희망의대하에 참석.

수매장

박정현 부여군수는 28일 오전 9시 20분부터 죽곡, 안서, 진곡 등 공공비축수매장 방문.

유가족 힐링캠프로 새로운 추억 선사

천안시, '함께가요, 우리' 성료

천안시서북구·동남구보건소와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천안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안영미)가 주관한 자살유가족 힐링캠프 '함께가요, 우리'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목천 숲내창의인성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유가족 힐링캠프는 가족단위의 캠프로, 자살유가족이 캠프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무너져 버린 일상을 되찾고 서로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캠프 첫 날은 꽃말린 인화를 이용한 책갈피와 플라스틱컵을 재활용해 냅킨아트로 꾸민 화분만들기, 고무마개, 배추를 팔아 동물에게 먹이주기, 질라인타기, 텐트 안에서 영화보기, 글램핑 바비큐파티 등을 했고, 둘째 날은 다육이 심기 활동을 한 뒤 녹림기념관을 방문했다.

참가자 장씨는 "큰아이가 있을 때는 자주 갔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족들과 여행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이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힐링이 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안영미 센터장은 "2019년도부터 '함께가요, 우리' 캠프를 매월 개최할 예정"이라며 "유가족들은 고민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린 삶을 살아가는데 이번 캠프가 휴식 그리고 다른 가족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추억을 쌓을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가족 캠프는 천안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cancaspi.or.kr)와 전화(041-571-0199)를 통해 참가자를 신청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채기명기자

계룡시 유기동물 위탁(보호)자 모집

충남 계룡시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 계룡시 유기동물 위탁보호 관리를 수행할 수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수탁자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와 포획, 처리 등의 사무를 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최소 30㎡이상 규모에 진료실, 격리실, 사육실, 방한급수시설 등을 구비하고 수의사, 동물사체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위탁계약, 구조(포획) 구조장비 및 운반차량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관리를 수행할 수탁자 접수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신청자는 계룡시청 농림과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동물보호관리 또는 축산 관련 업무 종사 경력, 책임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고 고득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농림과(042-840-2657)에 문의하면 된다.

동정

제203회 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김정섭 공주시장은 28일 오전 10시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

1사1촌 자매결연식



김동일 보령시장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주산면 주야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1사1촌 자매결연식, 오후 2시 보령문화의정당에서 열리는 가정성폭력 추방 결의대회, 오후 5시 30분 미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미산면 체육인의 밤 행사참석.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맹정호 서산시장은 28일 오전 10시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에 참석, 오후 5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 대산항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금산인삼 수출 mou 체결식



문정우 금산군수는 28일 오전 11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금산군-베트남 금산인삼 수출 mou 체결식에 참석.

정안면, 다문화가족 놀이공원 체험

공주시 정안면정안지은장은 지난 25일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45명과 함께 에버랜드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체험은 정안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창식)가 주관하고 정안면 라이온스클럽(회장 조정행)이 후원하는 것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꼭 가고 싶었던 에버랜드 놀이공원을 체험했다.

문화 체험에 참가한 다문화 가족들은 에버랜드에서 펼쳐진 겨울축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사를 관람하고 놀이기구 탑승, 판다월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가족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창식 정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다문화가족들이 현장 놀이공원 체험 등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간직하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서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팔 걷어

안심보육환경 수요증가에 따른 공보육 활성화



서산시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팔 걷고 나섰다.

금산군 체납액 제로화 총력

자주재원 확충·조세정의 실현... 다양한 방법 활용 체납액 징수 전력투구

금산군이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1월15일 현재 금산군 체납액은 지방세 36억2200만원, 세외수입 38억 2100만원 등 총 74억4300만 원에 달한다.

징수실적은 지방세 24억3100만원, 세외수입 7억4200만원 등 총 31억7300만원으로 징수 목표액 대비 73.9%(42억9300만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징수노력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복안이다.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 등록, 부동산·차량·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금산군은 부군수(김근주) 주재로 읍·면의 부면장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실·과 팀장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근주 부군수는 "납부기간부터 납부 홍보 등 초기대응을 잘 해서 근본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각 실·과, 읍·면이 협업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징수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세와 금강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43)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주연기 기자



내 집·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

공주시 옥룡발전협의회, 지난 8월부터 매주 월요일 정기적 실시

공주시 옥룡동(동장 주진영)은 지난 26일 옥룡교차로 일원에서 옥룡발전협의회(회장 유영근)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 집·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을 실시했다.

내 집·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은 골목길, 골터 등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깨끗한 환경을 함께

만들고자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옥룡발전협의회는 2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내 집·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 홍보도 병행 실시하여 청소에도 동참하는 상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영근 옥룡발전협의회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진영 옥룡동장은 "옥룡발전협의회가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빅데이터 분석 과학적 행정서비스 도모

금산군,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동기반 플랫폼 '해안' 활용

금산군이 군민에게 과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과제는 새울민원, 금산인삼축제 소셜 분석으로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동기반 플랫폼인 '해안'을 활용했다.

민원 분석은 새울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3년간의 데이터를, 금산인삼축제 소셜분석은 뉴스, 블로그, 트위터의 3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분석결과는 관련부서와 분석결과 공유를 통해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민원 분석결과 최다빈도 키워드로 '불법주차차',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불법광고물' 순이었다.

부서별 민원처리건수는 도시건축과, 주민복지지원실, 지역경제과 순으로 많았고, 군민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교통관련, 환경 관련

민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산인삼축제 소셜분석 결과 인삼축제의 관심도는 매년 증가 추세로, 주요 키워드는 '다양한 홍보활동', '차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도출되었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군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군민중심의 과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금산=김정환 기자

우리/동네

“미래도시 경쟁력 높여 시민 삶의 질 향상”

김동일 시장, 민선6기 시정 운영 청사진 밝혀



"지난 민선6기가 신 해양시대 인프라 구축과 미래행정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로 사통팔달의 교통망 개선,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을 비롯한 지역 전반의 고른 성장을 이루었다면, 실질적으로 민선7기가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미래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이 더 살기 좋고, 행복한 글로벌 해양관광명품도시로 비상에 나가겠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보령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민선7기의 시정 운영 방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시장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국제행사 정부승인과 원산도 투자선도지구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2년 연속 선정, 세계축제도시 선정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천북 굴단지를 현대화하는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보령항 개항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이는 900여 공직자들의 노력과 시민의 협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올 2019년은 우리시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서해안의 명품도시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단위 SOC사업의 진행과 함께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건강도시 행복한보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방향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 방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안전, 사회복지, 도로 등 기반시설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며, "의원님들께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당면한 대전리조트 운영개선, 태양광발전시설, 축사환경개선 등의 현안 과제의 해결로 시민 대통합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축제도시의 위상에 걸맞고 대한민국 해양관광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실천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 기자

보령시 동계시정참여 단기간 근로 대학생 30명 모집

보령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으면서 보령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단기간 근로 대학생 3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6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보령시로 되어 있는 대학 재학생이거나 보령시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휴학생 및 방송통신대·사이버대 재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전자 우편(eunsummy@korea.kr) 또는 방문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을 1차 대상으로 확정하고, 신청자가 선발인원보다 초과될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발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선발된 아르바이트생들은 2019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1개월 간 근무한다.

보령=김정미 기자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평생학습도시 보령시가 올 한 해 동안 평생학습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시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사람중심, 평생학습으로 모두의 삶을 빛나게 하겠다'는 주제로 제1회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평생학습박람회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보령시와 보령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평생학습 성과 공유와 정보 나눔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의 이해 증진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물놀이 동아리 연합의 식전 공연과 평생학습 유공자 표창,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성인문해교실 어르신 퀴즈대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충남정심원 난타팀과 대전고등학교 맨스동아리, 대전1-3중 주민자치연합회의 통기타 공연 등 우수 평생학습팀 및 청소년 동아리 20개 팀이 참여하는 발표회를 가진다.

아울러, 그동안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에서 갖고 묶은 솜씨로 제작한 공예·액세서리·미니어처·성인문해교실 시화전 및 사진전을 전시하고, 베트남 쌀국수, 중국 요리 등 다문화 먹거리 푸드존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시 보건소는 할양축정 및 치매조기검진, 보령소방서는 심폐소생술 체험 및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 보령고용센터는 취업 상담 등 20개 기관과 단체에서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보령=김정미 기자

서산시 곳곳서 '사랑의 김장나눔' 이어져

동문1동 새마을협의회와 E마트, 지곡면 우수산업, 한화토탈 등 김장나눔 봉사

서산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가 잇따라 열려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우수산업(대표 임우중)에서는 지난 25일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우수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해 김장 200포기를 담갔으며, 김장이 끝난 후 관내 어려운 이웃 29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전했다.

동문1동에서도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지난 23일에는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옆 즉구장에서 E마트 서산점(점장 김동성) 직원들과 동문1동 새마을자치도자협의회 회원 100여 명이 김장 500포기를 담가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앞서 한화토탈에서도 지난 16일 대산공장 사원식당 앞마당에서 임직원과, 대산을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 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장김치 1만포기를 담가 서산지역 불우이웃과 복지단체, 시설 등에 기증한 바 있다.

서산=김정환 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차달래 부인의 사랑 (KBS2 오전 9시00분)



준호는 집에서 송중기가 숨겨놓은 CCTV를 발견하고 경악한다. 진옥은 복남이 중요한 회의 자료를 날려버리자 회사에서 밤을 새고, 진옥이 보고 싶어진 복남은 다짜고짜 진옥의 회사로 찾아가는...

▲ 강남스캔들 (SBS 오전 8시30분)

신고는 X임우호, 캐리어로 얹히고살리며 본격 인연 시작?! 서준과 '핑크버블'의 파파라치 사진이 퍼지며

케이블 명화

▲ 광해:왕이 된 남자 (OCN 오전 10시50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명의 광해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봉당정치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8년, 자신의 복수를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져 가던 왕 '광해'는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협에 노출될 대역을 찾은 것을 지시한다.

이에 허균은 기방의 취객들 사이에 걸쭉한 만담으로 인기를 끌던 하선을 발견한다. 왕과 똑같은 외모는 물론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로 왕의 흉내도 완벽하게 내는 하선. 영문도 모른 채 궁에 끌려간 하선은 광해군이 자리를 비운 하룻밤 가슴 조이며 왕의 대역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허균은 광해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 하선에게 광해군을 대신하여 왕의 대역을 할 것을 명한다.



서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진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 소유라고 확신한 서준은 소유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운다. 한편, 소유는 서준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후계자라는 점을 알고 안절부절못한다. 그날 저녁,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는 소유 앞을 가로막는 한 남자,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서준인데...

▲ 붉은 달 푸른 해 (MBC 오후 10시00분)



[죽음과 사] 초록 옷을 입은 소녀가 사랑한 소년의 동생일 것이라 믿는 우경(김선아)은 소녀를 구해 내기로 마음먹는다. 한편 지현(이이경)은 안식원 자살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 신비한 동물사전 (채널CGV 오후 5시00분)

'해리 포터' 마법의 시작! 신비한 동물들을 탈출, 뉴욕 최대의 위기! 새로운 마법의 시대가 열린다!

1926년 뉴욕, '검은 존재'가 거리를 속대밭으로 만들고 미국의 마법의회 MACUSA의 대동령과 어둠의 마법사를 체포하는 오러의 수장 그레이브스가 이를 추적하는 혼돈 속에 영국의 마법사 뉴트 스캐먼더가 이곳을 찾는다.

그의 목적은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신비한 동물들을 찾기 위한 것.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신비한 동물들을 구조해 안에 마법의 공간이 있는 가방에 넣어 다니며 보살핀다. 하지만 은행을 지나던 중 금은보화를 좋아하는 신비한 동물인 니플러가 가방 안에서 탈출을 하고 이 일로 전직 오러였던 터나와 노마지 레이콕과 엮이게 된다. 이 사고로 뉴트와 레이콕의 가방이 바뀌면서 신비한 동물들이 대가 탈출을 하고 그들은 동물들을 찾기 위해 뉴욕 곳곳을 누빈다. 한편, '검은 존재'의 횡포는 더욱 거세져 결국 인간 사회와 마법 사회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모든 것이 뉴트의 소행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퍼펙트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OCN 4:30 점퍼 6:20 호실 8:30 너의 이름은 10:50 광해, 왕이 된 남자 13:30 프리스트 16:20 치즈언더트랩(2018) 18:50 엑스맨:아포칼립스 21:40 신의 퀴즈 리부트

채널 CGV

4:30 고질라(2014) 7:00 좋아해줘 9:30 실미도 12:10 성의원 14:50 핀타스틱4(2015) 17:00 신비한 동물사전 19:4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2:30 브이아이피(V.I.P.)

Mnet

7:20 M morning 8:10 쇼미더머니 트러플세븐 10:00 IZONE CHU 11:30 IZONE CHU 12:50 Wanna One COMEBACK SHOW: POWER OF DESTINY 14:10 MFD Music Tak 14:50 셀바디 16:50 Wanna One COMEBACK SHOW: POWER OF DESTINY 18:10 Daily Music Tak 19:00 인싸체널 체리블렛 20:00 셀바디 22:00 QT Show 23:00 IZONE CHU

스포츠 · 레저

MBC 스포츠플러스 10: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의 메달모습 12:00 <강구스페셜> 2017 세계 여자3쿠션 당구선수권대회 결승 13:00 MBC SPORTS+ 명승부 일발경다 14:00 2018 메이저리그 오승환·최지민 하이라이트 15:00 엠스플메이리스트 SBS 스포츠 9:00 18-19 V리그 남자부 11:00 2018 LG U+컵 3쿠션 미스터스 14:00 18-19 쇼트트랙 월드컵 2차 하이라이트 16:00 18-19 V리그 여자부 18:00 주군배구 다이제스트 18:50 18-19 V리그 여자부 21:00 18-19 V리그 여자부

온스타일

7:00 갯잇뷰티 2018 9:20 갯잇뷰티 2018 10:30 한식대첩-고수외전 12:00 원나잇 푸드트립스페셜 12:50 원나잇 푸드트립스페셜 14:00 갯잇뷰티 2018 15:10 줌 예민해도 괜찮아 16:10 은주의 방 17:00 갯잇뷰티 2018 18:10 원나잇 푸드트립스페셜 20:20 원나잇 푸드트립스페셜 21:30 선더방 23:00 밥블레스유

뉴스 · 다큐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들의 시사회방 20:15 YTN 24 21:00 뉴스인간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리포트 12:00 재테크, 알아야한다 13:00 증시리포트 13 15:40 부자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에감 부동산 제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시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열려라 성공채널 21:00 장외주식 4369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칼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천 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 13:45 <세계 테마 기행> 심장이 뛰는 페루-3부 14:45 <이스트림 애니멀> 가장 무모한 동물 TOP 10 15:45 포토 아크: 노아의 새로운 방주 16:45 TV 동물농장 19:00 <세계 테마 기행> 심장이 뛰는 페루-3부 20:00 아사아 헌터

MBC 뮤직

10:20 쇼챔피언 10:50 쇼챔피언 비하인드 11:50 피크닉 라이브송 12:50 MBC MUSIC HIT SONGS 13:30 비디오펠트 15:10 전지적 참견시점 17:00 주간 아이돌 18:00 Snow Champion

애니맥스

6:00 고스트 닌자고 7:00 파워레인 8:00 파워레인 워드 part 2 9:00 파워레인 타오3 10:00 영웅별탈출 공순이 친구들 11:00 파워레인 12:00 메탈로이드 13:00 마음의 소리 14:00 안방자두야 시즌 15:00 타남매카드W 시즌 16:00 헬로카봇5 17:00 지오메가비스트기디언

JET

7:00 다이노코어 2 8:00 파워레인 워드 part 2 9:00 타남매카드W 시즌 10:00 변신자두야 또또 107-링의 의뢰 11:00 울돌부리 슈퍼왕스 12:00 세서미 스트리트-엘모더 뮤지컬 13:00 소피루비 14:00 포켓몬스터 XY 15:00 12영웅전사 16:00 농지마정신술 17:00 헬로카봇 5 18:00 파워레인자두야노포스 브레이브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program schedules for each channel.

호서중, 전국 중·고등학생 심폐소생술 대회 중등부 대상

보령웅천도서관 2018

'책 읽는 가족' 시상

충남대표로 참가해 작년 최우수상 이어 대상 수상



당진 호서중학교교장 김경배는 지난 24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가 주관한 2018 전국 중·고등학생 심폐소생술 대회에서 중등부 대상을 수상했다.

을 받았다.

충남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대회 출전권을 따낸 호서중학교는 충남 대표로 참가해 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호서중은 지난 2015년 대전·세종·충남 응급처치 경연대회 금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6년 대상, 2017년 대상, 2018년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보였으며, 특히 2017년과 2018년 대회에서는 초·중·고·대학 대상팀 중 최고 득점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소방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보령웅천도서관 관장 김홍은 지난 23일에 2018년 '책 읽는 가족'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고 시상 후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독서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족단위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와 보령웅천도서관이 모범 독서가족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권혁민·백효정 씨, 두 가족을 시상했다.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된 백효정 씨는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되어 기쁘고, 아이들이 집과 학교 가까이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어서 좋다. 앞으로도 도서관을 자주 찾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시상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도서관에 바라는 점, 아쉬운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홍 관장은 이용자들의 관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서관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보령웅천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가족' 시상 외에도 매월 다독자 시상, 독서퀴즈 이벤트, 신규회원가입 이벤트, 그림책 원화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실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료실 이용 및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clib.or.kr) 또는 전화(041-934-8726, 178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령=김태선기자

부여교육지원청 Wee센터, 신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사전연수

실제 학교현장 적용할 수 있는 상담기법 등 주제로 실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실) Wee센터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019학년도 신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지

역기초사전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기초사전연수는 2019학년도 신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모집 지원자 중 선발된 봉사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본소양과 상담 자질 함양을 위해 다양한 상담이론과 실제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기법 등을 주제로 실시했다.

부여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역기초사전연수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집단상담 운영의 실제, 진로상담 이론과 활용, 현실치료상담을 적용한 진로상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

시장애인복지관, 한포기 나눔 배추 '행복김치 만들기'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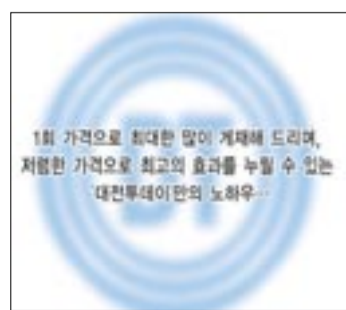


대전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7일 복지관 후분 주차장에서 대전지역 저소득 재가 장애인을 위한 한포기 나눔 배추, '행복 김치 만

들기'를 진행했다.

행복 김치 만들기 행사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200가정에 김장김치를 나눔으로써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단체 및 자원봉사자 80여명과 함께 2500kg의 김장을 버무리고 포장해 오는 30일 동안 저소득 재가 장애인 200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배재대 '공공도서관 잡지증서식' 개최 배재대가 8년째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잡지증서식'이 높은 호응도를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민의 읽는 문화 창달로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모델로 자리 잡았다. 배재대 중앙도서관은 27일 대전지역 7개 도서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도서관 잡지증서식'을 개최했다.



공주시자원봉사센터, KT&G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공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홍현)는 지난 27일 공주백제체육관에서 KT&G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음봉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특화사업 펼쳐 아산시 음봉면(면장 김희원) 복지이·반장과 새마을협의회(회장 박홍순, 부회장 이모숙)가 지난 26일 의식리에서 '2018 사랑의 집 고쳐주기' 특화사업을 펼쳤다.



청양군, 자원봉사자와 소통의 장 마련 청양군(군수 김준곤)이 자원봉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문화를 확산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군은 27일 청양읍 관내 식당에서 마을봉사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마을봉사의 날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우송정보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산학협력 협약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11월 26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가죽기업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aT, 지속가능한 농식품 발전을 위한 전·현직 임원 경영간담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6일 서울에서 전임 임원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발전을 위한 전·현직 임원 경영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마인드 함양 위해 마련 2018년도 우송정보대학 취업박람회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11월 27일 우송정보대학 동캠퍼스 체육관에서 2018년도 우송정보대학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우송정보대학과 함께하는 기업체 및 취업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송정보대학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마련됐다. (주)씨에치씨랩 등 17개 기업체와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사)대전광역시컨벤션센터협회가 참여했으며, 우송정보대학 LINC+ 사업단, 산학맞춤인력양성사업단



도 참여하여 취업상담 및 대학내 각 사업의 홍보 및 확산 활동을 하였다. 취업박람회장은 기업체 오픈,

취업컨설팅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커리어 설계를 위한 JOB 코칭, 지문적성검사, 캘리그래피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취업박람회에 참여해주신 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취업마인드 함양과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2018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심사

신영준 씨의 '민속놀이' 금상 수상



해를 맞아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대전의 다양한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아 금상을 수상했다. 대전시는 대전관광자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해 112명 456점의 작품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에는 성순용 씨의 '역사탐방'과 신지호 씨의 '하늘에서 본 계족산성'이 선정됐으며, 한국관광공사 특별상에는 노희원 씨의 '장태산에서의 힐링'이 선정됐다. 이밖에 동상 3명, 가작 5명, 입선 40명 등 모두 5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금상 200만원, 은상과 특별상은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태성기자

안전보건공단 대전본부(주)진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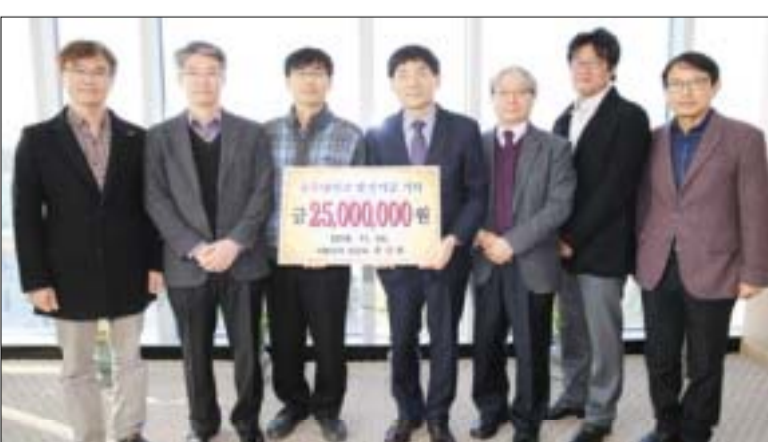
'사고사망 줄이기'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정완순)는 27일 (주)진합(대표 이원준)에 대해 '사고사망 줄이기' 안전점검 행사의 일환으로 지게차 사고예방 캠페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진합에 대한 안전점검에서는 지게차 자동 충돌방지장치, 속도제한센서 부착여부, 과속방지경보장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진합은 작업장 내에서 전동지게차 및 디젤지게차에 블루라이트와 레이저빔을 설치해 사고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전체 지게차에 대해 효과성 비교 검증 후 수평전개를 설치 할 예정이며 외부기관에 지게차 면허 취득 위탁 교육을 실시해 현재 70여명이 지게차 면허증을 보유해 지게차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사범대학 동문장학회 참갈회, 공주대 발전기금으로 2500만원 기탁 공주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달원) 사범대학 동문장학회 참갈회에서 대학발전기금 2,500만원을 기탁했다.



아산시 온양1동 부녀회, 관내 어르신들 위해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 참여

아산시 온양1동 부녀회(회장 안예숙)에서는 지난 26일,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지난 7, 8일에는 관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나눔을 실시한 바 있는 온양1동 부녀회는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어르신 식사를 대접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확산에 앞장섰다. 이날 행사는 매주 실시하는 무료 식사로 온양1동 부녀회는 봉사에 적극 자원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맛있게 식사를 드시고 초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안예숙 회장은 "관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한다."며, "함께 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아산경찰서 이강우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으로 행복한 아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양1동 부녀회에서는 지난 8월에도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11월에는 '사랑의 점심나누기'를 실시해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나누는 등 따뜻한 봉사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아산=리랑주기자



당진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기금사업 일환

'퇴행성관절염 관리 프로그램 2기'

당진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퇴행성관절염에 관리법 및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퇴행성관절염 관리 프로그램 2기'를 진행했으며, 27일 수료식 및 평가회를 가졌다.

관절염 관리 프로그램은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론교육, 운동교육, 영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차별로 진행되었다.

이론교육과 더불어 심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운동용품도 지원해 가정에서도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복지관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그동안 배웠던 교육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도 가졌다.

당진=최근수기자

동구, 제21회 고운매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내달 4일, 오후 7시 30분 지양동 우송에솔호텔에서 동구고운매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 주제는 '열정'으로 한국가곡과 대통령배 합창경연대회 출전곡 등 위와 기회를 전하는 다양한 음악으로 주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주회 합창곡은 ▲바람의 노래 ▲랜싱 퀸 ▲sing sing sing 등 드라마와 뮤지컬 곡들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특히 뮤지컬 가수 김승원이 특별출연하여 '영웅', '대성당들의 시대'로 목격한 감동을 전하고 피아노 연주자 김병준의 '녹턴', '캐리비안의 해적 OST' 아름다운 피아노 독주곡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수놓는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구구청 문화체육과 ☎251-4203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주)금산동백장례식장 적십자

사 바른충남기업 86호 가입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금산의 (주)동백장례식장 대표 장용선을 바른충남기업 86호로 선정하고 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창기 회장, 광병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장용선 대표에게 바른충남기업 명패 전달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동백장례식장은 금산군 군북면에 위치해 있으며, 장용선 대표는 35년간 장례사업을 계속해오면서 각종 사회복지단체에 나눔을 실천해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장례식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함께했다.

장용선 대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나중에 돈을 벌면 꼭 의미 있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범기자

■부고 ▲설용숙(TBN대전교통방송 본부장)모친 상 = 29일 서울 구로성심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칼럼

긍정 자존감은 우리 희망의 뜻이다



이창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최근 화제의 신간 《희망의 메아리 긍정 자존감》 저자 김명희는 “긍정 자존감은 우리 희망의 뜻이요, 삶의 방향키이다.”라고 했다. 또한 “누구나 자기 안에 긍정 자존감의 씨앗을 품고 있다. 비록 긍정의 씨앗이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믿으면 그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기 마련이다. 한번 자신을 믿어 줄 때마다 생명의 물과 공기, 햇빛을 주는 것이다.”라고 긍정 자존감이 지닌 가치 중요성의 이유를 밝힌다. 한마디로 긍정 자존감은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라고 할 수 있다.

다. “남을 어떻게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와 맞먹는 무한 긍정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일, 취미, 사랑, 봉사 등 다양한 삶의 현장, 관계성에서 긍정 정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사는 일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은 편안할 때보다 시련이 닥쳤을 때 자신감, 희망, 신뢰 등과 같은 긍정 자존감의 씨앗을 바탕으로 바람직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 누구나 자신의 삶을 관찰해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삶의 도약이 되어 줄 것이다. 누구나 긍정 자존감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한 제1조건은 목적의식이다. 무슨 일든지 왜 해야 하는지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이미 성공한 삶이다. 이러한 사람은 삶의 동기부여와 목적성의 의미와 가치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삶의 동력을 믿어 줄 때마다 생명의 물과 공기, 햇빛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긍정 자존감이 지닌 가치 중요성의 이유를 밝힌다. 한마디로 긍정 자존감은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라고 할 수 있다.

면 생각에 대하여 그렇다고 인정 또는 승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이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도 엄연히 달라진다. 《희망의 메아리 긍정 자존감》은 일상의 시선과 다른 각도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관찰하게 한다. 곧 긍정 자존감은 자기 관리,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형성, 환경에 적응력 등 개인의 인격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희망의 메아리 긍정 자존감》에 따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는 동안 자기다운 자기로 사는 데 의미가 있다. 바로 자기다운, 제 이름값을 하는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자는 밝힌다. 동시에 우리가 일상사에서 새롭고 놀라운 세계를 발견해 나가는, 경험과 참신한 실험을 사는 일이다. 인간 개인의 생애는 자기-자신의 긍정 자존감으로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생생한 즐김과 기쁨의 터전이기에 그러하다. 《희망의 메아리 긍정 자존감》은 끊임없이 자신의 현재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가치를 둔다. 인지신경과학자들은 정서와 관련된 모든 욕망은 의식 밖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 대부분은 경험한 감정을 기술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 책은 긍정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노력 여하에 따라 마침내 새로운 긍정 자존감을 생성하거나 강화하게 하는, 즉 개인의 무의식을 탐색함으로써 그 무의식을 의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이트의 “모든 꿈은 의미를 갖고 있고, 거의 깨어 있는 삶의 정신적 활동의 어떤 지점에 삽입될 수 있는 정신적 구조이다.”라는 말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긍정 자존감을 향상시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다. 매일 매순간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일이다. “이 생명의 작은 개울이/어느 불타는 정오에 말라 버리지 않도록!” 에밀리 디킨스의 시작품은 다방향적인 생각을 독자에게 열어 주고 있다. 우리는 설명 현재의 삶이 망망대해의 풍파 속이라 할 일이라도 현실 문제를 새로운 긍정의 빛으로 비추어 보게 됨으로써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동시에 삶의 방향을 희망의 뱃사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원천이라는 데 초점화된 프로그램들이 이 책은 제시하고 있어 우리는 그것을 일상에 적용해 봄으로써 인간 세계의 범주를 벗어나는 신의 시간 개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사설

가계부채가 1514조원이 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역대 최초인 1514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1492조 4000억 원보다 무려 22조 원 늘었다. 이는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 47조 원의 약 3.22배 가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95조 원이 늘어 6.7% 증가했다. 이는 가구당 평균 770만 원이 빛이다.

계정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소득 모두 악화일로이다. 자료에 따르면, 1·2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소득하위 20%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즉 소득 상위 20%가구의 평균소득은 소득 하위 20%가구 평균소득의 5.52배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 이래,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부채만이 아니다. 가계부채에 잡혀있지 않은 591조의 자영업자 대출도 위험요인이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가계부채비율은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2~3년간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역시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 신호는 이뿐만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인 일자리는 소득하위 20%가구의 경우, 취업자 수는 평균 0.6명 정도로, 지난해 3분기 0.83명보다 16.8%가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1분위가구의 근로소득이 22.6% 감소했다. 고용과 소득, 어떤 것도 성장시키지 못했을 정도로 위기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된다. 최근 발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최저임금, 탄력근무제 확대 등과 같은 문제를 논의,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과감하게 수정,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런 천문학적 수치의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가 증가된 상황에서 오는 3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주택가격까지 상승하게 되면 투자와 소비 하락으로 이어져 거품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은 더욱 힘들게 될 것이다.

특히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미국의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에 취약계층의 부담은 가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오히려 최근 발표된 수치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즉 지난 22일 통

웅진백제왕 추모제례 악무 콘텐츠화 학술세미나 성료

백제시대 전통공연예술 원형 탐색 닷 올린다

헤리티지큐레이션연구소와 공주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웅진백제왕 추모제례 악무 콘텐츠화’ 학술세미나가 지난 20일 공주문화원에서 박일훈 전 국립국악원장, 박순규 공주향교 전교, 공주유림 회원, 공주시충남연극악원 단원, 공주시 문화재과·문화관광과 담당관과 관련 연구자, 예술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매년 백제문화제 개막에 앞서 열리는 현행 ‘웅진백제왕 추모제’를 중심으로 백제시대 음악과 춤 재현을 위한 학술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

박일훈 전 국립국악원장은 축사에서 “조선왕조의 종묘가 서용에 있고, 고려왕의 종묘는 경기도 연천에 모셔져 있다.”며 “이곳 송산리고분군에 건립된 송덕전은 웅진백제왕의 종묘라 할 수 있고 매년 열리는 추모제와 제례의식의 음악과 춤에 대해 전통 공연예술의 원형을 탐색하고 재현을 위한 첫걸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 마련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성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임연구원은 “백제시대의 제례양상 연구” 발제에서 백제문화제의 제례 현황을 고찰하고, 민간제와의 소도(蘇塗, 삼한시대의 제사장소), 시조묘 제례, 천지신에 대한 제의, 유교·불교·도교 제의의 유입에 대해 발표했다.

남 박사는 “전통적인 제의는 영신-오신-송신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신을 맞이해 즐길 수 있게 하고 다시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의 흐름이 현대 제례의 관객 관점에서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숙희 진도국악고등학교 교장은 “백제악의 성격과 웅진백제 제례악 재현 방향” 발제에서 『고려사』, 중국과 일본 사료의 기록에 나타난 백제악의 성격을 분석하고 백제금동대향로의 악기를 통해 현행 웅진백제 제례악 재현 방향을 발표했다.

이 교장은 “현재 송산리고분군과 송덕전은 웅진백제의 종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거행되는 제례의 음악과 춤은 웅진백제 종묘제례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명칭을 제안했으며, “후방연동성(後方連動性)을 전제로 국조오례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왕실에서 역대 시조에게 향사하는 의식이 있었으며, 현재 유교문화의 전통을 이어 불행되는 웅진백제왕 추모제례에 아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과 복원 방향” 발제에서 복원, 창작, 체험의 유니버설 방식을 제안했다.

백제시대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악무 복원의 방향을 삼국사기 형식, 서역 및 불교 형식, 악학계법 형식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중앙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의 후원으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손혜일이 전통공연예술에 소재로 전통공연예술을 지속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미래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의 하나로 헤리티지큐레이션연구소(소장 이창근)가 주관했다.

연구과제를 총괄한 이창근 소장은 “백제문화제의 출발은 1956년 제례와 함께 시작되었다. 또 현재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역사문화축제의 출발도 시작된 배경은 전통시대의 제례의식이다. 그만큼 축제에서 제례는 그 축제의 역사적 배경과 직결되는 근간”이라며, “이번에 처음 시작된 연구사업과 학술세미나는 백제시대 전통공연예술에 대해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콘텐츠의 백제다움을 찾아야 된다. 앞으로는 지역의 전문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백제문화의 주인공인 공주시민, 충남도민이 지역의 문화정책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한편,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웅진백제왕 추모제’의 고품격화를 위해 ‘웅진백제왕 제례 및 제례복식 연구’를 시행했고, 2018년 웅진백제왕 추모제를 치른 9월 14일 공주유림회관에서 행사결과와 연구내용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가 지난 2015년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많은 외래 관광객이 충남 공주와 부여를 방문하고 있어 관광객 수용태세가 지속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관광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며, 백제문화제를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같은 글로벌 페스티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과 함께 백제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선7기 공주시의 문화정책에서 웅진백제왕 추모제의 고품격화, 세계적 축제로의 백제문화제 도약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정성범 기자

기고

음파로 토마토 저장기간 연장시키다



정미정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수확 후 농산물의 저장유통 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도와 안전성을 유지시키는 것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 수확 후 농산물의 저장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농

산물의 선도연장을 위한 기술개발은 수확 후 농산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란 수확 후 농산물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모든 과정을 걸쳐 신선도를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품질을 높이고 손실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제2의 생산”이라고도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수확 후 토마토의 숙성이 지연되는 특징을 이용해 1Hz를 선발하였고, 그 결과 1Hz의 단일음파를 처리한 토마토 과실은 무처리에 비해 약 30~40%가 익는 정도가 지연되었는데, 날짜로 환산하면 약 3~4일정도 유통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음파 처리된 토마토에서 과실의 숙성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에틸렌’의 발생량이 무처리에 비해 35% 정도 감소하였으며, 호흡량은 약 33% 정도 낮은 것이 확인되었고, 과피의 적색

정도를 나타내는 Hunter ‘a’ 값을 확인한 바, 음파처리 착색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실의 조직감을 나타내는 정도(Firmness) 또한 음파 처리시 감소율이 무처리 대비 약 45% 가량 낮게 나타나 연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파처리에 의해 숙기가 지연되는 원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하였다. 음파처리 토마토과실로 부터 에틸렌의 생성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모든 기간에 걸쳐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양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3,000배 정도가 감소한 유전자도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 추정컨대, 음파처리에 의해 에틸렌 생합성 과정 중 핵심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의 발현 감소로 인해 토마토의 숙기가 지연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향후 음파처리 기술이 실용

화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데 실제 농업현장에 적용 시 유리한 장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음파 처리 프로그램 운영도 매우 간편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는 특허출원을 완료하여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수확 후 농산물 관리 분야의 권위적인 학술지인 ‘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에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학문적인 가치도 인정받은 바 있다. 본 연구결과는 농업과 ICT와의 융합·복합을 통하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최근 추세에 적합한 신기술개발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초기반연구와 함께 농업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는 현장적용형 기술개발은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고

공직자가 걸어야 할 길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농부는 농사꾼의 길이 있고 상인은 장사치의 길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는 공직에 걸맞은 길이 있는 법이다. 스승에게는 사도의 길이 있고 판사에게는 법관의 정도가 있는 것처럼 군인에게는 충성의 길이 있으며 경찰관에게는 민중수호의 길이 있는 법이다. 저마다 정해진 길이 각기 다르지만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제대로서 일탈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생기고 마침내 병고로 이어지는 것이 이치다. 공직자가 택할 길은 빈틈없는 청렴하고 결백한 길이며 공직자가 가야 할 길은 정직하고 성실한 윤리도덕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는 양심적

이고 정의로운 길이여야 할 것이다. 공직자는 자신의 주장보다 국민의 존재를 우선해야하며 사리사욕보다 사회공익을 앞세워야하는 자 기희생의 길이 필요하다. 이것은 열 사봉공과도 직결되며, 공직자가 가는 길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하는 공복의 길이이다. 공직자가 가는 길은 민생안정과 국민안위를 위한 길이이다. 주인인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하는 가시밭길인 길이이다. 공직자가 가는 길이 어렵고 막중한 길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직자의 직책과 직분에 걸맞은 봉록(俸祿)을 내리고 공직

자가 양심을 버린 나머지 자신의 직책과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쟁기고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면 이런 사람은 정당한 국책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 탐관오리에 불과한 것이다. 공직자의 길은 양심의 길이이다. 공직자는 불편부당한 유혹을 물리치고 공명정당의 정도를 가야하는 것이다. 공직자는 빈천을 감수하고 청빈을 장려하는 청백리의 길을 가야한다. 그래야만 공직자는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형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번호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내내 042538-1602	광고신청내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제는 전광판 시대
광고문의는 대전투데이로

광고문의 : 042-538-3030